현 제 명

훈향전

Vocal Score

편곡 | **김희조**

보컬스코어 편곡 | **조상욱**

감수 | **김덕기**

혜원기념문화재단

현 제 명

춘향전

Vocal Score

편곡 | **김희조**

보컬스코어 편곡 | **조상욱**

감수 | **김덕기**

혜원기념문화재단

발간사

혜원기념문화재단은 저희 어머님이신 고(故) 윤혜원 여사님의 뜻을 기리고자 설립된 문화예술 재단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엄격함과 자상함을 함께 지니시고, 늘 절제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이미 조명된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문화예술의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오페라 〈춘향전〉의 악보가 새롭게 정리되어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창작 오페라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작품이 그동안 통일된 표준 악보 없이 필사본과 임시 악보에 의존해 공연되어 왔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본 재단은 「오페라 춘향전 악보 재편곡 및 디지털 보급 사업」을 통해 이 작품의 체계적 정리와 보급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뜻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1965년 〈춘향전〉 오케스트라 편곡을 맡으셨던 고(故) 김희조 선생의 아드님이신 김덕기 서울대학교 교수께서 오랫동안 보관해 오신 자료가 2023년 새롭게 확인된 것입니다. 반세기를 넘어 다시 세상에 나온 이 자료는 본 사업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귀중한 자료를 기꺼이 제공해 주신 김덕기 교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보컬 스코어는 해당 자료를 1차 근거로 삼아 현제명 작곡가의 오리지널 스코어와 면밀히 대조·정리하여 완성한 결과물입니다. 복원과 편집의 전 과정을 맡아주신 조상욱 교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울러 본 개정판의 완성을 위해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이오테크닉스 성규동 회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성된 악보는 PDF 형태로 제작되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문화는 예술과 문학, 교육과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공동의 자산입니다. 본 악보가 공연과 교육의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우리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어머님의 따뜻한 뜻이 문화예술을 통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혜원기념문화재단 이사장 심 현 식

머리말

〈춘향전〉은 대한민국 최초의 창작 오페라로서 음악사적·연극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일된 표준 악보가 부재하였으며, 공연 현장에서는 필사본과 임시 편집 악보에 의존해 온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존의 총보와 보컬 스코어는 상호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어 왔다.

현제명 작곡가가 남긴 원자료는 성악 선율과 피아노 반주 중심의 등사본에 한정되어 있다. 1965년 김희조 작곡가에 의해 오케스트라 편곡이 이루어졌으나, 관련 자료는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지 못한 채 전승·연주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3년, 김희조 작곡가의 아들인 김덕기 서울대 교수가 보관하던 필사본 콘덴스드 스코어가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본 작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본 개정판은 해당 콘덴스드 스코어를 1차 자료로 삼아, 기존 오케스트라 총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오류를 정리하였다. 동시에 성악 선율, 가사, 형식 및 곡 배열에 있어서는 현제명 작곡가의 스코어를 면밀히 대조하여, 두 자료 간의 불일치와 오류를 통합·수정하였다. 그 결과, 본 악보는 기존 어느 판에도 온전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표준 보컬 스코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피아노 반주부는 콘덴스드 스코어에 나타난 오케스트라 반주의 구조와 화성 진행을 충실히 반영하여 새롭게 정리하였다. 이는 단순한 축약을 넘어, 성악가·합창단·지휘자·연출자가 작품의 음악적 구조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 반주를 지향한다. 또한 공연 여건과 제작 환경에 따른 선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는 Vi-De(cut) 표시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본 보컬 스코어는 단독 활용을 위한 자료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제작될 오케스트라 풀 스코어 및 파트보의 기초 자료로 기능하도록 기획되었다. 이에 따라 마디 번호, 리허설 번호, 곡 번호 및 장면 구분 체계는 이후 편집될 총보 및 파트보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아울러 보컬 스코어로서의 가독성과 실용성을 우선으로 하여 B5 판형을 기준으로 편집하였다.

본 악보는 혜원기념문화재단의 지원 아래 제작되었으며, 연구와 공연을 위한 공공적 활용을 목적으로 재단 홈페이지(https://hwoncf.org)를 통해 무료로 공개된다. 한편 〈춘향전〉 초연 관련 사료인 『한국 오페라 첫 15년의 궤적』 중 본 작품에 관한 발췌 내용은 본 악보의 부록에 수록하였다.

본 개정판을 통해 〈춘향전〉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음악적 토대 위에서 재공연되고, 나아가 한국 창작 오페라의 중요한 유산이 다음 세대에 보다 정확한 형태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

춘향전

전 5 막

대본 : 이서구
작곡 : 현제명
편곡 : 김희조

초연 : 국립극장, 1950년 5월
연출 : 유치진, 지휘 : 현제명

등장인물

이도령	.....	테너
춘향	.....	소프라노
월매	.....	메조 소프라노
방자	.....	테너
향단	.....	소프라노
사또	.....	바리톤

기타 : 운봉, 랑청, 호방

때 : 조선후기,　　곳 : 전라도 남원

차 례

제1막 광한루 (廣寒樓)

오월이라 단오절에 (합창) 12
얘들아! 물렀거라 (방자) 22
야! 요자식! 왜 이렇게 억지야! (향단, 방자) 30
온누리엔 봄빛 (도령 - Aria) 35
물위를 날으는 기러기는 (춘향, 도령, 향단, 방자, 졸개 - Finale) 39

제2막 춘향의 집 (春香家)

야! 향단아! (향단, 방자 - Duet) 53
저것이 벌써 커서 (월매 - Aria) 62
한번을 보아도 내사랑 (춘향, 도령 - Duet) 67
도련님! 야단났습니다 (춘향, 도령, 향단, 월매, 방자, 사령 - Finale) 77

제3막 동헌 (東軒)

기생점고하라! 100
나는 이곳 제일가는 사또님인데 (사또 - Aria) 107
춘향아! 보아하니 천하일색이로구나 (춘향, 사또) 111
아이고! 내 딸 죽는다 (월매, 합창) 119

제4막 1장 남원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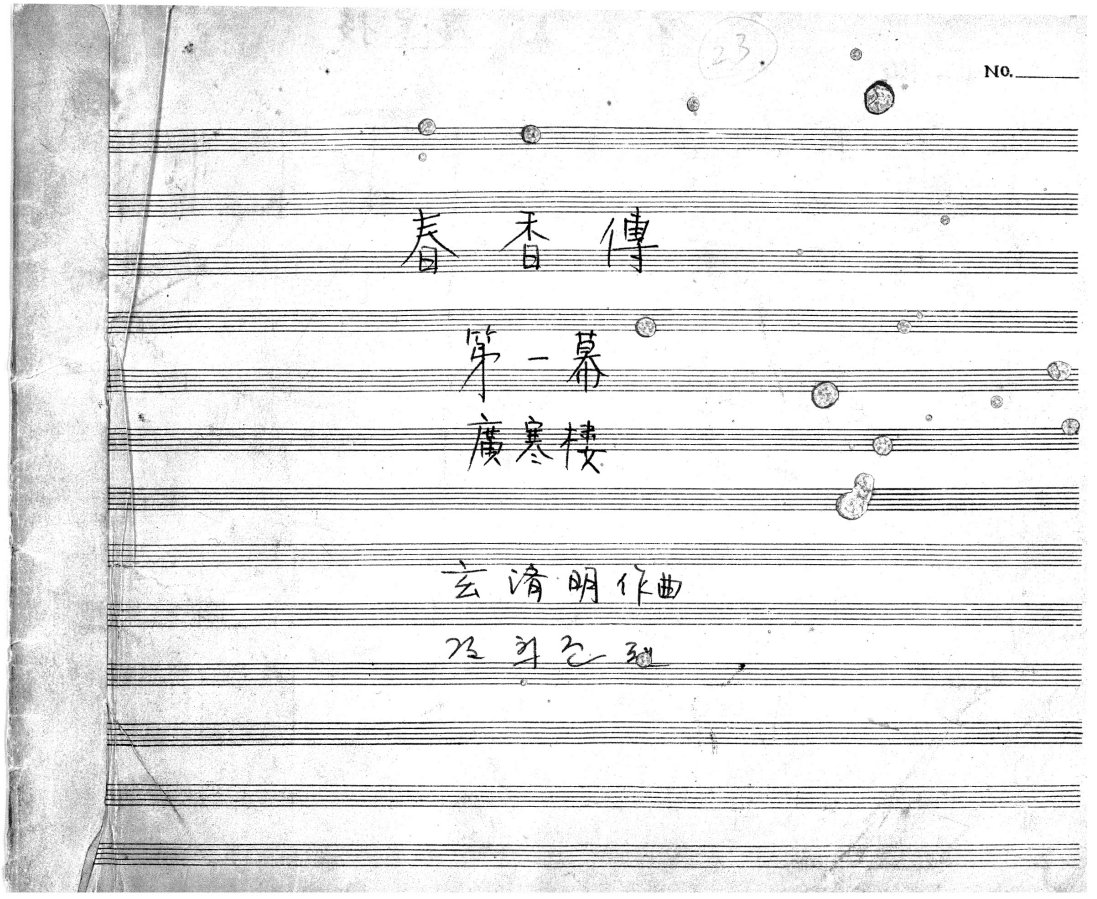
위대하옵신 암행어사여! (남성합창) 123
동편하늘 밝아온다 130
농부가 (합창) 134
어떤놈은 팔자 좋아서 (도령, 방자) 146

제4막 2장 옥중 (獄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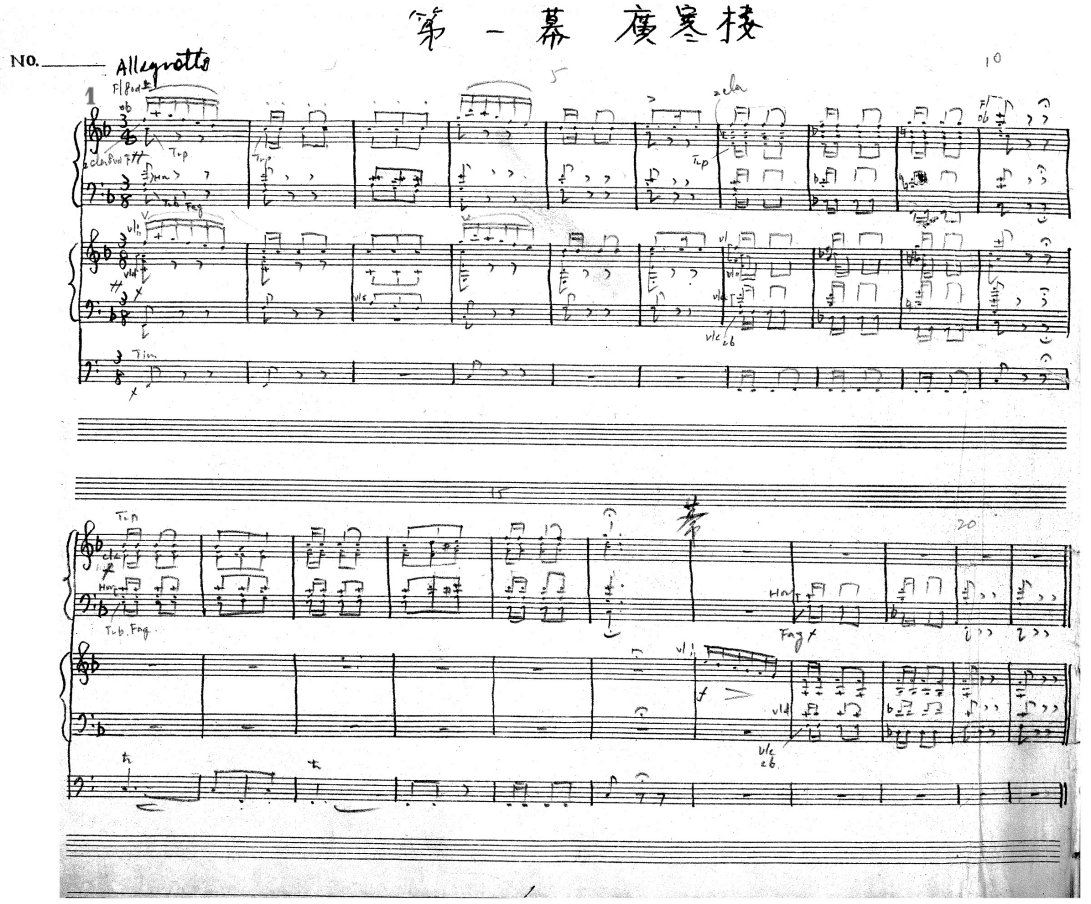
꿈자리가 이상하다 (춘향 - Aria) 156
그리워 그리워 (춘향, 도령 - Duet) 165

제5막 사또 생일잔치

사또! 수복을 빕니다! (사또, 운봉, 합창) 172
동편하늘 밝아온다 (도령, 사또, 운봉) 182
우리의 암행어사여! (전체 - Finale) 195



김희조 편곡 악보의 표지



김희조 편곡 악보의 첫 페이지

배역 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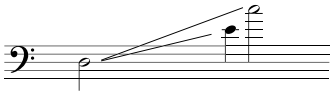
성춘향 Sopr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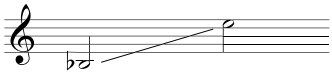
이도령 Bari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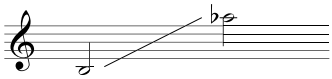
변사또 Bari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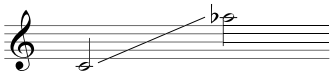
월매 Al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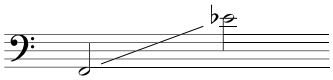
향단 Soprano



방자 Ten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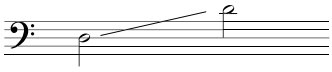


졸개 1막 5중창
사령 2막 5중창 Bas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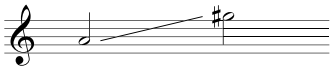


*1캐스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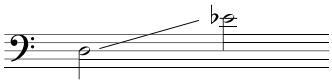
운봉 5막 Basso



랑청 3막, 5막 Tenor (Bar.)



호방 3막 Bari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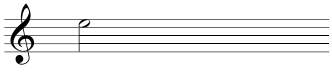
옥졸 4막 2장 Basso (합창단원)



군수 / 이방 Tenor (합창단원)



기생 2명 여 (합창단원)



춘 향 전

春 香 傳

현제명

제 1 막

광한루 (廣寒樓)



Copyright © 2025 by HYEWON Cultural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 2025 혜원기념문화재단


1
여성(혼성)합창
합창
오 월 이 라 단 - 오 - 절 - 에 추 천
mf
27
합창
하 는 저 아 가 - 씨 삼 남 대 - 로
32
합창
버 들 가 지 등 - 뚜 렷 이 높 이 솟
37
합창
아 흐 늘 흐 늘 늘 - 어 졌 - 다


42
합창
오 월 이 라 단 오
48
합창
절 에 추 천 하 는
54
합창
아 가 씨 들 삼 남
60
합창
대 로 버 들 가 지 흐 느 적 흐 느 - 적


66
합창
가 는 봄 은 또 다 시 돌 아 오 나
70
합창
옥 인 홍 안 바 없 다 젊 은 한 때 이 시 절 님 - 같 - 이 -
fz
ossia
놀 - 다 - 가 - 가 련 다 -
75
합창
놀 - 다 - 가 - 가 련 다 -
80
합창
오 월 이 라 단 - 오 - 절 - 에 추 천 하 는



*) 100마디부터는 김희조 작곡의 무용을 위한 삽입곡


염불
굿거리


138
mf
142
f
146
150
f
3
p
154
f
158


Allegro 자진모리
162
p
ff
166
171
176
ffz
ff
181
186
fz


191
196
f
mf
201
207
p
212
ff
f
217
mf
mp


222
p
pp
228
합창
오 월 이 라
ff
234
합창
단 - 오 - 절 - 에 추 천 하 는 저 - 아 가 씨
240
합창
삼 남 대 - 로 버 들 가 지 등 - 뚜 렷 이


246
합창
높 이 솟 아 흐 늘 흐 늘 늘 - 어 - 졌 - 다
252
합창
오 고 가 는 나 그 네 발 멈 추 고 경 개 절 승
257
합창
광 한 루 보 고 가 세 노 래 하 며 춤 추 어 이 한 봄 을 즐 거 이
fz


264
합창
님 - 같 - 이 - 맞 - 으 - 세 - 오 월 이 라 단 오 절 에 이 한 봄 을
f
269
합창
맞 이 하 세 오 월 - - -
sfz
2
Moderato
방자
얘 들 아 물 렀 거 라 사 또 자 제
f
mf
fp
p
279
방자
도 령 님 이 나 오 신 다 도 령 님 여 기 가 천 하
fz
fp


282
방자
승 지 올 - 시 - 다 저 기 가 오 작 교 요 여 기
286
방자
가 광 한 루 로 소 이 다
289
292
296
도령
그 래 참 경 개 절 승 하 다


301
도령
때 마 침 무 르 녹 는 봄 - 이 - 로 구 나
305
f
308
도령
경 치 좋 - 다 - 광 한 루
311
도령
가 득 찼 - 다 - 봄 향 기 꽃 그 - - - 늘 - - -
p
314
도령
에 나 만 혼 - 자 - 거 니 니
f


317
도령
짝 을 지 - 어 - 가 는 봄 뉘 와 같 - 이 -
320
도령
즐 길 까 꽃 지 - - - 나 - - - 니
323
도령
고 운 님 이 그 - 리 워 라
sfz
326
fp
f
Poco mosso
329
방자
3
그 말 씀 부 질 없 소 글 배 는 도 령 님 이
fp
f
mf


332
방자
점 - 잖 게 노 실 게 지 객 적 은 색 시 생 각 천 만 당 치 않 소
335
도령
야 방 자 야! 저
방자
왜 요?
p
339
도령
저 것 보 이 느 냐?
방자
그 게 무 엇 입 니 까? 도 령 님 부 채
fp
p
342
도령
저! 저 것 네 눈 에 는 안 보 이 느 냐?
방자
온대
f
fz
p


346
도령
이 부 채 끝 가 는 데 를 자 세 히 보 아 라
350
도령
(비웃으며)
아 따! 그 녀 석
방자
살 찐 암 소 풀 뜯 는 것 말 씀 이 오?
f
cresc.
354
도령
상 놈 의 눈 에 는 소 만 보 이 느 냐
방자
오 라
fp
358
방자
웃 동 노 랗 고 아 랫 동 은 붉 - 은 그 네 위 - 에


361
방자
아 름 답 게 그 네 타 는 미 인 말 씀 입 니 까?
364
도령
옳 다! 그 게 다 그 것 이 무 엇 이 냐?
방자
도 령 님
mf
p
368
방자
그 게 바 로 춘 향 인 데 인 물 이 절 색 이 요
373
도령
이 놈 아! 시 끄 럽 다
방자
반 하 리 다
f


377
도령
가 서 데 려 오 너 라
방자
안 되 오 춘 향 모 는
f
381
방자
기 생 이 나 춘 향 은 여 - 염 생 장 이 라
385
도령
이 놈! 무 슨 잔 말
방자
불 러 도 올 - 까 말 까 하 오
fz
fz
388
도령
이 냐! 불 러 오 라 면 어 서 불 러 오 는 게 지!
sfz


Poco mosso
391
방자
네!
mf
fp
394
mf
fp
397
fp
400
p
3
향단
야! 요 자 식!
왜 이 렇 게 억 지 야
방자
사 또 자 제 도 령 님 이
f
sfz
f


407
향단
방자
이 자 식 아!
춘 향 이 를 부 르 신 다
mf
409
향단
그 네 뛰 는 사 람 보 고 오 너 라 가 너 라 가
p
411
향단
뭐 냐
방자
요 놈 에
8va
413
방자
계 집 애 가 누 구 더 러 이 자 식 저 자 식 이 야! 그 래
f


415
향단
그 래 우 리 아 가 씨 가
방자
행 실 을 잘 가 져 도 그 래
p
417
향단
무 슨 행 실 이 나 쁘 더 란 말 이 냐
방자
오 냐
f
420
방자
들 려 줄 터 이 니 들 어 보 아 라 과 년 한 계 집 아 이 가
ff
p
mp
424
방자
그 네 를 뛸 터 이 면 은 행 여 나


427
방자
남 이 볼 세 라
제 집 마 당 에 서 뛸 것 이 겠 지
430
방자
조 렇 게
예 쁜 처 녀 가
광 한 루 라 사 방 터 진
p
433
방자
곳 에 서
그 네 가
무 슨 그 네 냐
436
방자
눈 꼴 시 려 못 보 겠 다!
p


439
춘향
앗 따 사 또 자 제
향단
요 녀 석 트 집 은 좋 다
mf
p
442
춘향
라 고 세 도 를 쓰 는 게 지
방자
야! 춘 향 아
p
447
방자
아 니 다 그 런 것 이 아 니 다 도 령 님 이 먼 밭 으 로
452
방자
너 를 보 시 고 서 잔 뜩 반 하 시 었 다 누 구 의
p


456
방자
명 령 이 라
거 역 할
터 이 냐
가 자
p
pp
460
방자
가 자
가 자
-
rit.
Andante
p
464
도령
4
온
누 리 - 엔 -
봄
빛
p
467
도령
가
득 찼 - 건 -
만
나
의 가 - 슴 -


470
도령
속 은 빈 것 같 - 이 - 외 로 웁 더
473
도령
니 - 하 늘 주 - 신 - 연 분
476
도령
오 늘 이 - 구 - 려 피 는 꽃 - 봉 -
479
도령
오 리 사 랑 가 - 득 - 넘 치 노 - 라


483
도령
춘 향!
춘 향!
f
487
도령
나 와 같 이 이 한 봄 을 마 저 즐 기
f
490
도령
세
봄 속 에
p
fp
p
493
도령
봄
꽃 속 에 꽃


496
1.
도령
설 레 - 는 - 이 마 음 알 아 주
mf
500
도령
고 받 아 다 오 봄 향 기
504
도령
가 슴 설 렌 다 아
507
2.
도령
아! 넘 치 는 내 사 랑


510
도령
받 - 아 다 - - 오 -
ff
514
fz
f
mf
5
춘향
물 위 에 날 으 는 기 러 - 기 는 물 찾 아 바 다 로 날 아 가 고
p
523
춘향
꽃 속 에 잠 자 는 나 비 - - 는 꽃 찾 아 언 덕 을 헤 메 나 니
527
춘향
어 쩌 다 이 몸 은 꽃 이 되 니 나 비 를 어 찌


530
춘향
찾 으 리 까 화 창 한 오 월 단 오 절 에
533
춘향
추 천 하 려 고 광 한 루 앞 에
mf
535
춘향
나 왔 사 오 니 허 물 치 마 시
Poco mosso
537
춘향
오
방자
춘 향 아 여 러 말 하 지 말 고 도 령 님 말 씀 을 잘 들 어 라
p


539
향단
방 자 네 가 무 엇 이 어 떻 고 어 떻 다 여 러 말 많 은 가
방자
도 령 님 을 두 고 보 면 체 격 과 인 물 이 좋으 시 고 재 주 와 능 력 이
p
542
춘향
기 러 긴 물 찾 아 바 다 로 날 으 고
향단
방 자 야! 우 리 춘 향 아 가 씬
방자
많 으 사 앞 날 에 큰 벼 슬 하 실 줄 알 아 야 지
p
545
향단
태 도 와 인 물 이 잘 났 고 썩 물 러 서
도령
아! 옳 은 말 이 다 지 혜 있 는
졸개
소 인 놈 말 이 이
mf
f


547
춘향
아! 봄 은 짙 어 서
향단
라 도 령 님 도 좋 지 만 은
도령
그 말 이 다 옳 지 나 비 가 꽃 을
방자
잘 모 르 겠 다
졸개
렇 게 시 원 할 진 데 우 리 도 령 님 맘 은
549
춘향
무 르 녹 았 다 아 화 창 한 봄
향단
아 가 씨 더 욱 좋 다 여 러 말 말 고 서 물
도령
찾 아 가 야 만 하 지 야 방 - 자 야
방자
잘 모 르 겠 다 꽃 이 나 비 를 따 를 지
졸개
오 직 기 뻐 하 실 까 아 경 사 가 났 구 나 경 사 가


551
춘향
- 날 꽃 과 나 비 만 나 리
향단
- 러 서 거 라 -
도령
- 그 말 이 옳 다 다 되 었 다
방자
나 는 모 르 겠 다
졸개
나 남 원 땅 네 둘 레 다 돌 아 보 아 도 경 사 가 났 네
553
춘향
향 - 단 아
향단
가 지 못 한 다 네 가 무 엇 하 니
도령
이 놈 방 자
방자
어 서 가 보 자 때 를 놓 지 말 고
졸개
남 원 골 춘 향 아 가 는


555
춘향
그 만 두 어 라
향단
도 령 님 께 서 도 행 운 이 지 가 지 못 하 겠 다
도령
잔 말 말 으 라
방자
너 로 서 크 나 큰 영 광 이 다 어 서 가 - 보 자
졸개
인 물 과 지 혜 가 훌 륭 하 다 그 러 면 그 래 나 비 가 꽃 을
557
춘향
그 만 두 어 라
향단
두 분 께 서 알 아 하 시 오
도령
내 가 알 아 하 니 두 어
방자
두 분 께 서 알 아 하 시 오
졸개
따 라 가 는 것 이 옳 지 꽃 을 보 고 오 라 가 라


559
춘향
그 만 두 어
향단
그 만 두 어
도령
라 야 알 았
방자
그 만 두 어
졸개
그 것 은 안 될 말 이 로 다 춘 향 이 하 는 말
561
춘향
라 단 오 날 기 쁜 날
향단
라 단 오 날 기 쁜 날
도령
다 단 오 날 기 쁜 날
방자
라 단 오 날 기 쁜 날
졸개
사 리 가 똑 바 른 말 이 로 소 - 이


563
춘향
화 창 한 봄 이 라 꽃 향 기 무 르 녹 네 나 비 가 꽃 찾 아 가 는
향단
화 창 한 봄 이 라 꽃 향 기 무 르 녹 네 너 방 자 같 이 무 식 한
도령
화 창 한 봄 이 라 꽃 향 기 무 르 녹 네 나 비 가
방자
화 창 한 봄 이 라 꽃 향 기 무 르 녹 네 난 그 것 무 슨 말 인
졸개
- 다 방 자 내 말
fz
mf
fz
566
춘향
것 나 비 가 꽃 찾 아 가 는
향단
놈 이 야 알 아 듣 겠 는 가 아 가 씨
도령
꽃 찾 아 가 야 지 춘 향 이
방자
줄 을 알 아 듣 지 못 해 덮 어 놓 고 오 라 시 면
졸개
들 어 보 아 라 봄 꽃 은 춘 향 이


568
춘향
것 나 는 꽃 - 인 - 데
향단
말 씀 을 정 신 차 려 서 들 어 보 겠 는 가
도령
하 는 말 옳 고 지 혜 가 넘 치 는 말 이 로 다
방자
가 는 것 이 옳 지 않 나 꽃 과 나 비 그 렇 지
졸개
오 나 비 는 도 령 님 이 - 다
570
춘향
그 렇 다 봄 향 기 에 취 하 여 서 이 리 저 리 날 으 나 니
향단
그 렇 다 나 도 기 뻐
도령
그 렇 다 넘 치 나 보 오 넘 치 는 이 사 랑
방자
그 렇 다 사 또 자 제 도 령 님 과 천 하 미 인 춘 향 아 씨
졸개
그 렇 다 한 평 생 을 두 고 보 아 도


573
춘향
기 쁜 봄 의 조 화 요 어 찌 나 를 깨 워
향단
뛰 겠 네 넘 치 는 사 랑 이 좋 구 나
도령
받 아 다 오 넘 치 는 사 랑
방자
기 쁨 니 다 넘 치 는 사 랑 이 좋 - 구 나
졸개
이 렇 게 훌 륭 하 신
575
춘향
주 나 이 까 기 쁜 오 늘 이 로 다
향단
나 비 는 꽃 보 고 춤 을 추 네 꽃 찾 아 가 는
도령
받 아 다 오 꽃 찾 아 가 는
방자
나 비 는 꽃 보 고 춤 을 추 네 꽃 찾 아 가 는
졸개
원 앙 보 지 를 못 하 였 나 이 다


577
춘향
오 월단 오 날 복 된오 늘 꽃 향 기 넘 치 는 오 월 이 여
향단
이 나 비 는 기 쁘 리 라
도령
이 나 - 비 는 산 이 나 물 이 나 무 섭 잖 네
방자
나 비 는 기 쁜 날 이 로 다 꽃 향 기 넘 치 는 오 월 이 여
졸개
이 나 비 는 산 이 나 물 이 나 무 섭 잖 네
579
춘향
님 따 라 가 는 길 기 쁘 리 다 즐 겁 도 다 오 늘 이 여
향단
도 령 님 은 즐 겁 도 다 오 늘 이 여
도령
산 이 나 물 이 나 어 디 든 지 따
방자
도 령 님 은 즐 겁 도 다 오 늘 이 여
졸개
도 령 님 은 즐 겁 도 다 오 늘 이 여


581
춘향
나 비 꽃 과 같 이 화 창 한 이 봄 을
향단
나 비 와 꽃 이 기 뻐 히 놀 며 같 이 화 창 한 이 봄 을
도령
- 라 가 리 라 내 사 랑 이 여 화 창 한 이 봄 을
방자
나 비 와 꽃 이 기 뻐 히 놀 며 같 이 화 창 한 이 봄 을
졸개
나 비 는 꽃 속 에 향 기 를 머 금 고 있 네 화 창 한 이 봄 을
f
583
춘향
같 이 같 이 사 랑 의 향 기 에 영 원 히 잠 기 리
향단
같 이 같 이 사 랑 의 향 기 에 영 원 히 잠 기 리
도령
같 이 같 이 사 랑 의 향 기 에 영 원 히 잠 기 리
방자
같 이 같 이 사 랑 의 향 기 에 영 원 히 잠 기 리
졸개
같 이 같 이 사 랑 의 향 기 에 영 원 히 잠 기 리
ff


585
춘향
로
다
향단
사 랑 의 향 기 에 영 원 히 잠 기 리 다
도령
사 랑 의 향 기 에 영 원 히 잠 기 리 다
방자
사 랑 의 향 기 에 영 원 히 잠 기 리 다
졸개
사 랑 의 향 기 에 영 원 히 잠 기 리 다

1막 끝

제2막
춘향의 집(春香家)




24
28
1
f
rit.
32
방자
야 향 단 아 도 령 님 과 춘 향 이 가
mf
36
방자
오 늘 저 녁 저 렇 게 도 깨 가 쏟 아 지 듯
39
방자
하 니 너 도 나 도 좀 재 미 나 게 한 판 놀 아
p


42
향단
네 까 지 껏
무 엇 보 고
방자
보
자 꾸나
45
향단
놀 겠 니
방자
사 랑 에 도 상 놈
있 고 양 반 있 니
fz
48
방자
이 다 음 에 도 령 님 이
큰 벼 슬 을 하 시 면
fz
p
50
방자
나 도 괜 찮 다
요 래 봬
도
fz
sfz


53
향단
그 래 방 자 도 그 쯤 하 고 보 - 면 그 래 도
mf
p
57
향단
마 음 끌 려
60
향단
요 녀 석! 징 그 럽 다 백 년 묵 은 능 구 렁 이
63
향단
홀 아 비 냄 새 코 찌 른 다
방자
왜 요 렇 게 시 치 미 를
sfz


66
♩ = 120
방자
떼 냐 요 것 아
sfz
f
69
72
2.(향단)
향단
달 아 달 아 밝 은 달 꽃 가 지 - 에 - 걸 린 달 짝 도 없 는 저 달 은
1.(방자)
방자
달 아 달 아 밝 은 달 꽃 가 지 - 에 - 걸 린 달 짝 도 없 는 저 달 은
p
75
향단
어 느 곳 - 서 - 날 찾 나 단 아 단 - 아 - 방 자 야 나 도 나 도 저 같 이
방자
어 느 곳 - 서 - 날 찾 나 단 아 단 - 아 - 향 단 아 나 도 나 도 저 같 이


78
향단
끝 과 같 은 사 랑 에 속 삭 여 보 자 그 럴 듯 도 하 고 나
방자
끝 과 같 은 사 랑 에 속 삭 여 보 자
p
81
향단
나 도 솔 깃 하 고 나
방자
그 렇 지 그 렇 지 수 줍 은 척 말 고 서
85
방자
나 의 손 을 잡 으 라 안 고 업 고 뛰 고 서 사 랑 사 랑 하 자
f


88
향단
방 자쯤 도괜 찮어 그 만하 면내 사랑 아
방자
아 아 아
tr
91
향단
f
방 아에 는꿈 나라 우 리들 - 은 - 끝 나라 사랑사랑내 사랑
방자
f
방 아에 는꿈 나라 우 리들 - 은 - 끝 나라 사랑사랑내 사랑
mf
3
3
94
향단
내 팔자 - 도 - 상 팔자
방자
내 팔자 - 도 - 상 팔자 향 단이 - 는 - 곱 단이
3


96
향단
네 몸 꼴 은 뚱 딴 이 이 만 하 면 우 리 도 한 쌍 원 앙 새
1.
D.C.
방자
이 만 하 면 우 리 도 한 쌍 원 앙 새
99
2.
향단
아 아 아
방자
사 랑 사 랑 내 사 랑 사 랑 사 랑 내 사 랑 아
tr
102
향단
사 랑
방자
사 랑 사 랑 내 사 랑 사 랑 사 랑 내 사 랑 아
f


106
109
월매
요 년 놈 들 잘 논 다
112
월매
계 집 애 년 이 안 으 로 썩 못 들 어 가
fp
116
mf


119
방자
여 보 시 오 왜
122
방자
나 를 푸 대 접 하 시 오
사 람 은 다 마 찬
125
방자
가 지 요
나 도 향 단 이 쯤 이 야 자 격 이 있 지 요
128
방자
당 신 사 위 잘 본 것 누 구 덕 인 데 공 술 한 잔 도 안 주 시 오?


Poco meno
132
월매
암 그 야
sfz
mf
135
월매
이 집 술 이 다 자 네 술 이 아 닌 가? 향 단 이 보 고 달 래 서 맘 껏
138
rit.
월매
놀 고 먹 게
Andante
140 월매 아리아
월매
2
저 것 이 벌 써
mf
3
3
p


145
월매
커 서 남 편 정 을 아 는 구 나
150
월매
온 누 리 는 꿈 속 에 잠 겨 있 고 꽃 바 람 은 불 어 풀
밝 은 달 은 하 늘 에 가 득 찼 고 타 는 새 사 랑 은 땅
156
월매
rit.
잎 나 무 잎 맺 - 힌 이 슬 이 향 수 를 뿜 은 듯 향 기 가 돈 - 다
과 바 다 에 가 - 득 찼 나 니 지 나 간 옛 님 이 다 시 그 립 - 다
160
월매
옛 날 사 랑 나 의 가 슴 에


163
월매
사 무 친 옛 - 님 생 각 나 의 가 슴 에 사 무 친 옛 - 님 생 각
p
f
p
166
월매
To Coda
그 - 리 워 라 그 - 리 워 라 지 나 - 간
mf
p
mf
p
p
169
월매
옛 날 에 내 사 랑 간 절 하 구 - - 나
173
D.S.


176
Coda
월매
나 - 의 님 이 여 그 립 - 소 이 - -
181
월매
다 -
f
p
186
f
p
Allegro
Recitative
190
p
tr
196


202
*Vi-
207
212
217
-De
221
도령
춘 향 이 날 좀 업 어 주 오


226
춘향
부 끄 러 요
도령
어 서
230
춘향
누 가 보 겠 소
234
사랑가
238
춘향
도령
한


3
춘향
번 을 보 아 도 내 낭 군 열 번 을 보 아 도 내 낭 군 아
도령
번 을 보 아 도 내 사 랑 열 번 을 보 아 도 내 사 랑 아
252
춘향
무 리 보 아 도 사 랑 존 귀 한 도 령 나 의 사 랑 - 이
도령
무 리 보 아 도 사 랑 어 여 뿐 춘 향 나 의 사 랑 - 이
p
260
춘향
렇 게 보 아 도 내 사 랑 저 렇 게 보 아 도 내 사 랑 아 무 리
도령
렇 게 보 아 도 내 사 랑 저 렇 게 보 아 도 내 사 랑 아 무 리
p


269
1.
2.
춘향
보 아 도 사 랑 존 귀 한 도 령 나 의 낭 군 한 -
도령
보 아 도 사 랑 어 여 뿐 춘 향 나 의 사 랑 -
277
춘향
이
도령
해 가 변 - 할 지 라 도 춘 향 아 변 치 마 라
mf
285
춘향
몸 은 도 령 님 몸 이 오 니 변 할 바 아 니 오
도령
이 맘 은


294
춘향
이 름 은 송 죽
도령
철 석 같 으 니 사 랑 영 원 하 리 라
303
춘향
같 으 오 나 절 개 굳 으 리 - 사 - 랑
도령
사 랑 사 랑 내 사
312
춘향
- 사 - 랑 - 이 리 봐 도 내 사 랑
도령
랑 둥 글 둥 글 내 사 랑 이 리 봐 도 내 사 랑


321
춘향
저 리 봐 도 내 사 랑 사 - 랑 -
도령
저 리 봐 도 내 사 랑 사 - 랑 -
329
춘향
사 - 랑 - 사 - 랑 - 하 늘 에
도령
사 - 랑 - 사 - 랑 - 하 늘 에
338
춘향
저 달 도 기 우 나 우 리 는 햇 님 과 한 가 지 영 원 히
도령
저 달 도 기 우 나 우 리 는 햇 님 과 한 가 지 영 원 히


346
춘향
온 누 리 밝 히 비 치 네 사 랑 영 원 하 리 - 한 번 을
도령
온 누 리 밝 히 비 치 네 사 랑 영 원 하 리 - 한 번 을
354
춘향
보 아 도 내 사 랑 두 번 을 보 아 도 내 사 랑 억 만 번
도령
보 아 도 내 사 랑 두 번 을 보 아 도 내 사 랑 억 만 번
362
춘향
보 아 도 우 리 영 원 한 사 랑 우 리 사 랑 - 사
도령
보 아 도 우 리 영 원 한 사 랑 우 리 사 랑 - 사


370
춘향
- 랑 - 내 사 랑 내 사 랑 내 사 랑 내 사 랑 내 사 랑
도령
- 랑 - 내 사 랑 내 사 랑 내 사 랑 내 사 랑 내 사 랑
378
춘향
영 - 원 - 한 - 사 랑 영 - 원 - 한 - 사 랑 내 사 랑 내 사 랑
도령
영 원 한 사 랑 영 원 한 사 랑 내 사 랑 내 사 랑
384
춘향
내 사 랑 내 사 랑 태 - 산 - 과 - 같 - 은 - 사 - 랑 - - - - - 바 다 와
도령
사 랑 태 산 과 같 은 사 랑 바 다 와


391
춘향
같 은 사 랑 내 사 랑 내
도령
같 은 사 랑 내 사 랑 내
399
춘향
사 랑 둥 굴 둥 굴 둥 굴 둥 굴 사
도령
사 랑 둥 굴 둥 굴 둥 굴 둥 굴 사
408
춘향
랑
도령
랑
fff


415
방자
왜? 왜?
수사
야 방 자 야 큰 일 났 다 어 서 가 자 사 또 님 이
fff
fff
p
ff
ff
418
수사
큰 일 났 다 어 서 가 자 어 서
p
ff
ff
p
(월매 들어온다)
421
춘향
어 머 니 왜
ff
p


426
춘향
나 오 셨 소?
월매
하 도 떠 들 기 에 나 와 봤 다
429
월매
웬 일 인 가
도령
집 에 서 방 자 를 데 려 갔 소
f
p
432
춘향
어 머 니 그 만 주 무 시 지 요
월매
전 에 는 그 런 일 이 없 더 니
p
p


436
♩ = 80
월매
오 냐 너 도 그 만 자 거 라
dolce
mf
441
pp
447
♩ = 120
4
f
방자
도 령 님 야 단 났 습 니 다
ff
450
도령
무 어 냐? 왜 그 래?
방자
어 서 가 십 시 다
fz
ff
fz
fz


453
방자
큰 일 났 어 요
어 떡 해 요?
f
fz
456
도령
이 놈 아
갑 갑 하 -
다
어 서 말 을 해 라
또 누 가
rit.
fz
fz
ff
459
Moderato
도령
아 버 지
께 무 슨 말 한 게
지
p
462
방자
다 른 게 아 니 오 라
사 또 님
p


465
방자
이 승 지 로 승 급 하 시 고 서 울 로 올 라 가 신
468
방자
대 요 그 리 고 도 령 님 은 어 머 님 모 시 고
p
471
방자
새 벽 으 로 먼 저 떠 나 시 라 고 추 상 같 은 명 령 이
f
474
방자
내 렸 습 니 다
ff


Moderato
477
춘향
왜 그 렇 게 걱 정 을 하 시 오 제 가 따 라
480
춘향
가 지 않 을 까 걱 정 을 하 시 오 사 랑 하 는 님 을
Allegro
483
춘향
따 라 서 어 디 든 지 가 리 다
487
도령
춘 향 아


489
도령
그 랬 으 면 정 말 좋 겠 다
우 리 아 버 지
491
f
도령
는
완 고 하 시 다
f
494
p
도령
우 리 의 내 막 을 모 두 아 시 고
497
도령
기 생 자 식 이 라 고
혼 인 대 문 막 -
f
mf


500
도령
히 고 사 당 제 사 못 한
502
도령
다 고 책 하시 고 호 령까 지
504
월매
기 생자 식 어 쩌고 어 째
도령
하 셨 지
fp
f
507
도령
춘 향 아 어 쨌 으 면 좋 으 냐? 진 퇴 유 곡 이 다
p
fz
fz
fz


509
Andante
도령
데 리 고 가 자 니 부 모 명 령 거 역 이 오
mf
513
Recitative
월매
두 고 선 안 돼! 언 제 는 백 년 가 약
도령
두 고 서 가 자 니
fz
517
월매
하 고 진 탕 치 고 놀 고 이 제 는 혼 자 간 다! 이 년 아


521
rit.
월매
따 라 가 거 라 같 이 못 가 면 죽 어 라!
ff
p
524
Andante
춘향
어 머 니 제 가 알 아 하 리 다 진 정 하 세 요
529
춘향
서 방 님 우 리 어 머 님 은 허 물 마 시 오
mf
532
춘향
늙 으 시 어 그 러 하 오 이 다
월매
아 이 구 저 년 제 서 방 밖 에 몰 라


Andante ♩= 80
535
춘향
서 방 님 서 울 올 라 가 셔 서
p
p
538
춘향
나 의 생 각 마 시 고 글 공 부 잘 하 시 라 대 과 급 제 하 시 고
541
춘향
부 모 님 께 여 쭈 어 나 를 데 려 가 세 요 나 는 여 기 혼 자 서
p
544
춘향
rit.
어 머 님 뫼 시 고 서 기 다 리 리 다 기 다 리 리 다


accel.....Allegro
547
도령
춘 향 아
549
사령
서 방 님 어 서 가 십 시 다
551
사령
모 두 들 기 다 려 요
대 부 인 은 벌 써 오 리 정 까 지 갔 어 요
553
♩ = 100
도령
힘 써 공 부 하 여 벼 슬 하 고 데 려 가 마
방자
가 세 요!
f
fz
fz
fz
fz


556
♩ = 120
방자
서 방 님 어 서 갑 시 다
f
fz
558
방자
나! 사 또 님 께 꾸 중 듣 지 않 게
sfz
sfz
mf
562
♩ = 100
춘향
님 이 - 여 - 이 - 거 - 울 이
도령
장 부 - 의 - 세 - 운 - 뜻 이
f


565
춘향
변 치 - 않 - 는 - 맹 - 세 - 요
도령
어 떻 - 게 - 변 - 하 - 리 - 요
567
춘향
우 리 서 로 변 치 말 - 고
도령
해 를 두 고 맹 세 하 - 며
569
춘향
만 날 날 을 기 뻐 기 다 리
1.
도령
달 을 두 고 맹 세 하 나 이 다


572
2.
춘향
이 거 울 님 본 듯 이 내 항 상
mf
575
춘향
품 으 리 이 다 강 건 너 산 - 넘 - 어
578
춘향
가 신 님 을 그 리 오 리 다 이 반 지
p
581
춘향
드 리 오 니 끝 없 이 둥 근 이 사 랑


584
춘향
끝 간 데 없으리이다 평 안 히 가 시오
587
춘향
내 사 랑
월매
천 리 길 그 대 보 내 온
590
월매
서 천 을 쳐 다 보 면 서 밤 낮 을
593
춘향
아!
월매
변 치 않 고 치 성 을 드 리 겠 - 네
도령
아!


596
춘향
우 리 - 의 - 세 - 운 - 뜻 - 이 - 큰 뜻 이
향단
세 운 뜻 이 세 - 운 - 큰 뜻 이
월매
세 운 뜻 이 세 - 운 - 큰 뜻 이
도령
우 리 - 의 - 세 - 운 - 뜻 이
방자
세 운 뜻 이 세 - 운 - 큰 뜻 이
사령
세 운 뜻 이 세 - 운 - 큰 뜻 이
598
춘향
변 - 치 - 않 - 는 - 우 - 리 - 사 - 랑 -
향단
변 치 않 는 그 사 랑 을
월매
변 치 않 는 그 사 랑 을
도령
어 떻 - 게 - 변 - 하 - 리 - 오
방자
변 치 않 는 그 사 랑 을
사령
변 치 않 는 그 사 랑 을


600
춘향
해 - 를 두 고 맹 세 하 며 맹 - - - 세 - - - 하 - - - 오 - - -
향단
해 두 고 맹 세 요
월매
해 두 고 맹 세 요
도령
해 - 를 두 고 맹 세 하 - 며
방자
해 두 고 맹 세 요
사령
해 두 고 맹 세 요
602
춘향
달 두 고 맹 세 하 나 이 다 이 별
향단
달 을 두 고 맹 세 하 오 이 별
월매
달 을 두 고 맹 세 하 오 이 별 - 이 오 이 별 이 오
도령
달 을 두 고 맹 세 하 나 이 다 이 별
방자
달 을 두 고 맹 세 하 오 이 별
사령
달 을 두 고 맹 세 하 오 이 별
p

606

춘향 서 - 러 - 운 이 별

월매 이 - - 별 - 에 이 내 가 슴 이

도령 서 - 러 - 운 이 별

방자 서 - 러 - 운 이 별

사령 서 러 운 이 별

609

춘향 이 별 다 시 다 시

향단 이 별 다 시 다 시

월매 터 진 다 만 날 - 때 를 기 - - 다 리 이

도령 이 별 다 시 다 시

방자 이 별 다 시 다 시

사령 이 별 다 시 다 시


612
춘향
다 - - - 시 - - - 기 - 쁘 게 만 나 리 이 다 다 - - - 시 - - - 기 - 쁘 게
향단
만 나 리 다 만 나 리 이 다 다 시 다 시
월매
다 만 나 리 이 다 다 시 다 시
도령
기 쁘 게 만 나 리 다 기 쁘 게 만 나 리
방자
만 나 리 다 만 나 리 이 다 다 시 다 시
사령
만 나 리 다 만 나 리 이 다 다 시 다 시
615
춘향
만 나 리 이 다 꽃 피 고 바 람 없 는 그 날 에
향단
만 나 리 이 다 꽃 은 피 고 바 람 도 없 는
월매
만 나 리 이 다 꽃 은 피 고 바 람 도 없 는
도령
다 꽃 피 고 바 람 없 는 그 날 에
방자
만 나 리 이 다 꽃 은 피 고 바 람 도 없 는
사령
만 나 리 이 다 꽃 은 피 고 바 람 도 없 는


618
춘향
큰 벼 - 슬 - 깃 - 발 - 날 리 며 기 - - 뻐 - - 히 - - 만 나 -
향단
그 - 날 - 에 큰 벼__ 슬 하 고 오 리
월매
그 - 날 - 에 큰 벼__ 슬 하 고 오 리
도령
큰 벼 - 슬 - 깃 - 발 - 날 리 며 기 - - 뻐 - - 히 - - 만 나 -
방자
그 - 날 - 에 큰 벼__ 슬 하 고 오 리
사령
그 - 날 - 에 큰 벼__ 슬 하 고 오 리
621
춘향
리 길 이 길 이
향단
방 자 향___ 단 감 히 말 씀 올 리 나 이 다 오 신 후 에
월매
길 이 길 이
도령
리 길 이 길 이
방자
방 자 향___ 단 감 히 말 씀 올 리 나 이 다 오 신 후 에
사령
길 이 길 이


624
춘향
사 랑 사 랑
향단
우 리 혼 사 도
월매
사 랑 사 랑
도령
사 랑 사 랑
방자
우 리 혼 사 도
사령
사 랑 사 랑 바 람 부 - 는 -
627
춘향
이 별 사 랑 이 별
향단
이 별 사 랑 이 별
월매
이 별 사 랑 이 별
도령
이 별 사 랑 이 별
방자
이 별 사 랑 이 별
사령
날 이 나 비 오 는 궂 - 은 - 날 도


630
사령
두 분의 행-복을 위 해 기 도 를 하 리
634
춘향
이 별 이 별 이 별 편 히 가 오
향단
이 별 이 별 이 별 잘 가 시 오 잘 가 시 오 잘 가 시 오 잘 가 시 오
월매
이 별 이 별 이 별 잘 가 시 오 잘 가 시 오 잘 가 시 오 잘 가 시 오
도령
이 별 이 별 이 별 내 사 랑 아 내 사 랑 아
방자
이 별 이 별 이 별 잘 가 시 오 잘 가 시 오 잘 가 시 오 잘 가 시 오
사령
다 잘 가 시 오 잘 가 시 오 잘 가 시 오 잘 가 시 오
p
pp


638
춘향
내 님 이 여 이 별 잘 가 시 오
향단
이 별 잘 가 시 오
월매
이 별 잘 가 시 오
도령
이 별 이 별 잘 가 시 오
방자
이 별 잘 가 시 오
사령
이 별 잘 가 시 오
642
춘향
잘 가 시 오
향단
잘 가 시 오
월매
잘 가 시 오
도령
잘 가 시 오
방자
잘 가 시 오
사령
잘 가 시 오
fff
2막 끝

제3막
동헌 (東軒)




17
19
21
24
사또
1
기 생 점 고 하 라
27
기생
네!
호방
네!
유 색 이


30
32
34
p
36
기생
호방
네!
초 월 이
39
41


43
사또
에이 보 기 싫 어
46
기생
네!
호방
반 월 이
49
50
52
사또
3
무 엇 들 이 야
치워 라!


55
사또
기 생 점 고 그 만 두 어 라 남 원 땅 이 색 향 이 란 데
59
사또
쓸 만 한 년 하 - 나 도 없 구 나
호방
사 또 님 께 서 는 그 렇 게 보 실 지
62
호방
모 르 겠 사 오 나 모 두 가 호 남 일 색 들 인 줄 을 아 뢰 오
64
사또
너 의 고 을 에


66
사또
춘 향 이 있 다 더 니 어 찌 점 고 에 없 는 가?
68
호방
춘 향 은 기 생 아 닌 줄 을 아 뢰 오
70
사또
내 들 으 니 춘 향 은 원 기 의 자 손 이 요 인 물 이
72
사또
절 색 이 란 데
호방
춘 향 은 전 관 사 또 자 제


75
호방
도 련 님 과 백 년 가 - 약 을 맺 고 도 령 님 이
78
호방
돌 아 오 기 만 을 기 다 리 며 수 절 하 고 있 어
81
사또
그!
호방
어 - 림 도 없 다 고 아 뢰 오
84
사또
무 슨 소 린 고! 내 앞 - 에 어 떤 년 이 수 절 이 란 말 인


87
사령
네!
사또
가! 사 령! 당 장 에 춘 향 이 를
90
사령
네!
사또
잡 아 오 라
호방
사 또 께 서 들 면 되 기 야 되 지
93
사또
그 무 슨 소 린 가
호방
그 래 도 와 야 지
95
사또
내 말 을 거 역 할 자 누 구 냐 말 이 다


98
사령
네
네
사또
사 령! 왜 머 뭇 하 느 냐 썩 가 서 잡 아 못 와!
Andante
2
101
사또
나 는 이 곳 제 일 가 는
104
사또
사 또님 인 데 어 느 누 가 거 역 할 까
못 할 일 이 무 엇 인 가
107
사또
하 고싶 은 모 든것 은 다 할 터 라 어 느 누 구 가
쌓 여있 는 미 인들 은 다 나 의것 암 소 도 야 지


110
사또
막 - - - 으 리 요 호 방 과 사 령 군 관 형 리
내 - - - 술 안 주 내 눈 에 드 는 미 인 들 은
113
사또
그 기 세 땅 을 진 동 하 며 큰 바 다 물 도
내 마 음 대 로 할 터 이 다 어 느 누 구 가
116
사또
rit.
뒤 집 겠 나 니 한 계 집 이 야 품 에 넣 겠 지
거 역 할 텐 가 춘 향 이 쯤 은
119
사또
a tempo
아 춘 향 소 문 내 들 었 다 삼 남 제 일


123
사또
미 인 이 라 그 의 자 태 어 여 쁘 기
126
사또
백 합 같 은 것 이 라 니 이 가 슴 - - 에
129
사또
불 - - 붙 는 다 사 랑 하 자 사 랑 하 자 춘 -
133
사또
향 헤……
랑청
신 관 사 또 께 서 역 시 명 관 이
f


Andante
춘향 등장
137
랑청
라 에헤…
온 다 와 춘 향 이
f
f
141
랑청
하 하 하 하
p
145
148
150
사또
올 라 와


3
153
사또
춘 향 아 보 아 하 니
p
155
사또
천 하 일 색 이 로 구 나 다 른 생 각 하 지 말 고 나 와 함 께
159
사또
놀 아 보 자
랑청
옳 지! 그 래 그 래 그 래 그 래 그 래 그 래
f
p
f
Andante
162
춘향
충 신 에 게 는
랑청
암 그 렇 고 말 고
p


165
춘향
두 임 금 이 없 - 고
열 녀 에 게 는
169
춘향
두 남 편 이 없 으 니
한 낭 군 을
173
춘향
기 다 리 는 소 녀 에 게 는 그 런 말 씀
176
춘향
마 시 오
랑청
그 래


179
사또
랑청
아 니
그 래 그 래 그 래 그 래 그 래 그 래 암 그 렇 고 말 고
182
사또
그 대 는 그 래 도 옳 지 고 저 래 도 옳 지 니 그 뭔 가
fz
187
사또
괴 씸 하 다
fz
fz fz
Allegro espressivo
191
사또
너 같 은 천 한 계 집 열 녀 소 리 우 습 구 나 아 랑 말 고
f


193
사또
수 청 을 들 어 서 나 의 객 고 풀 어 다 오 그 럴 진 대
fz fz f
197
사또
너 에 게 도 해 롭 잖 지
f
200
춘향
Andante
한 계 집 한 남 편 서 로 믿 고 사 는 것
p
204
춘향
사 또 의 말 씀 은 너 무 나 과 하 시 -


207
춘향
오 날 더 러 절 개 를 깨 치 라 고 하 시 면 당 신 도
f
f
Allegro
211
춘향
역 적 노 릇 하 시 겠 소!
사또
무 엇 이 어 쩌 고
fz
214
춘향
사 또 가 잘 못 하 니
사또
어 째 관 상 발 악 괴 씸 하 다
fz
ff
f
217
춘향
낸 들 어 이 참 - 으 리 까
사또
형 틀 에 앉 히 고
f


Allegro vivace
220
사또
저 년 을 때 려 라!
랑청
네!
f
fz
223
p
p
227
p
p
231
사또
때 려 라
랑청
네
p
f
ff


235
사또
더 때 려
랑청
네
f
ff
ff
239
사또
이 래
fz
p
f
243
사또
도 못 하 겠 나!
저 년 에 게
p
ff
246
사또
다 짐 장 을 받 아 라
랑청
네
ff


249
ff
p
254
춘향이 一心이라고 써준다
사또 대노
p
260
사또
한 마 음 이 라
f
f
262
사또
고!
저 년 을
p
f
fp
265
사또
더 때 려 칼 씌 워 하 옥 하 - 라!
랑청
네
f


268
270
272
4 Largo ♩= 56
274
월매
아이고 내딸죽인다 한남편섬긴
278
월매
3
무슨죄요 억울하여라
합창
억울하오 억울하여라


282
월매
하 나 님 이 여
살 펴 주 소 서
합창
하 나 님 이 여
살 펴 주 소 서
pp
Moderato
286
합창
(월매 춘향 맞잡고 울며)
억 울
억 울 하 오
290
합창
춘 향
억 울 하 오
열 녀
무 슨 죄 요


294
월매
내 딸 춘 향 이 억 울 하 오 한 남 편 섬 김 이
합창
억 울 억 울 하 오 한 남
297
월매
무 슨 죄 라 오 아이 고! 아이 고!
합창
편 을 섬 김 무 슨 죄 가 되 오 억 울



3막 끝

제4막
1장
남원가는 길


Tempo di Marcia
f
5
fz
fz
1 (역졸합창) 남성
9
f
위 대 하 옵 신 암 행 어 사 여 명 령 한 번 만
f
mf
합창
13
내 리 시 면 은 물 이 나 불 이 나 뛰 어 들 어 가 정 의 를 위 해
합창


17
합창
싸 우 리 이 다 자! 나 아 가 세 자! 용 감 하 게
20
도령
너 희 들 은 여 기 서 좌 편 으 로 모 든 고 을 다 살 피 고 이 달 십 오 일
fp
22
도령
오 시 에 는 남 원 광 한 루 에 대 령 하 라!
합창
네! 산 도 옛 날 산 이
ff
mf
f


25
합창
요 강 도 옛 날 강 이 오
요 강 도 옛 날 강 이 오
28
합창
우 리 들 의 할 일 은 정 의 를 위 하 여
우 리 들 의 할 일 은 정 의 를 위 하 여
31
합창
싸 - - 우 리 라 날 랜 범 - 같 이 용 감 하 - 여 라


34
합창
암 행 어 사 따 른 역 졸 들 이 여!
위 대 하 옵 신 암 행 어 사 여
f
f
mf
38
합창
명 령 한 번 만 내 리 시 면 은
물 이 나 불 이 나 뛰 어 들 어 가
42
합창
정 의 를 위 해 싸 우 리 이 다
자! 나 아 가 세 자! 용 감 하 게
싸 우 리 이 다
자! 나 아 가 세 자! 용 감 하 게


46
도령
나 는 예 서 혼 자 서 우 편 으 로 모 든 고 을 다 살 피 고 이 달 십 오 일
fp
48
도령
오 시 에 는 남 원 광 한 루 로 와 만 나 세
합창
네! 탐 관 오 리 하 는
mf
ff
f
51
합창
놈 불 충 불 고 하 는 놈


54
합창
정 조 유 린 하 는 놈
낱 낱 이 찾 아 서
57
합창
처 - 단 하 리 라
날 랜 범 - 같 이
용 감 하 - 여 라
60
합창
암 행 어 사 따 른 역 졸 들 이 여!
용 감 히 나 가 자


63
합창
역 졸 들 용 감 히 나 가 자 역 졸 들
66
합창
암 - 행 어 - 사 암 - 행 어 - 사 암 - 행 어 - 사 암 - 행 어 - 사 어
어
69
도령
가 세!
합창
사
네!
사
네!
f


Largo
73
도령
3
이 달 십 오 일 광 한 루
p
pp
p
77
(도령 옛추억) 새벽 해가 오르기 시작
도령
pp
pp
2
f
Allegretto
81
도령
동 편 하 늘 밝 아 온 다
85
도령
모 든 희 망 가 져 온 다
만 날 님 을 그 리 면 서


89
도령
갈 길 멀 구 나 새 로 워 라 옛 날 일 이
93
도령
꿈 결 같 이 지 났 건 만 다 가 오 는 기 쁜 희 망
97
도령
가 슴 속 에 가 득 찼 구 나 악 한 놈 은 잡
p
100
도령
아 처 단 하 고 서


103
도령
선 한 사 람 찾 아 가 며 편 히 살 게 하 리
106
도령
라 나 의 백 성 나 의 민 족
109
도령
사 랑 사 랑 하 리 라
f
동 편 하 늘 밝 아
112
도령
온 다 모 든 희 망 가 져 온 다 만 날 님 을 그 리


116
도령
면 서 갈 길 멀 구 나 새 로 워 라 옛 날
120
도령
일 이 꿈 결 같 이 지 났 건 만 다 가 오 는 기 쁜
124
도령
희 망 가 슴 속 에 가 득 찼 구 나 춘 향
128
도령
춘 향 내 사 랑
rit.....
a tempo



*) 농부가는 편곡자 김희조가 판소리 춘향전에서 채보, 편곡한 곡임


153
mf 남성합창
합창
상 사 - 디 야 여 보 시 오 농 부 님 네 - 이 내 말 을
mf
158
합창
들 어 보 - 소 어 허 - 허 농 부 들 말 들 어 보 소
163
남성솔로
합창
일 - 락 서 산 에 해 는 떨 - 어 지 고 월 출 -
sf
168
all unison
f
합창
동 령 에 달 솟 는 다 에 야 하! 에 -
sf
f


174
합창
야 - - - - 상 사 - - - - 뒤 히 야
여성합창
179
합창
두 리 둥 - 둥 두 리 둥 두 리 둥 둥 꽤 갱 매 깽 매 꽹 - 여 보 시 요 농 부
184
합창
님 네 이 내 말 을 들 어 보 소 아 나 - 농 - 부 - 야 -
농 부 님 네 이 내 말 을


여성솔로
189
합창
말 들 어 요 폭 양 벝 에 살 - 이 - - 검
이 내 말 들 어 요 폭 양 벝 에
194
합창
고 흙 탕 - - - - 물 에 - - - 벼 가 굴 네
살 이 검 고 흙 탕 물 에 벼 가 굴 네
199
합창
이 고 생 을 낙 을 - - - 삼 아 부 모 처 자 - - 봉 양 하 니 - - 어 찌 - - -
어 찌


204
f
all unison
합창
아 니 - 낙 이 -- 련 가 에 야 하!
아 니 낙 이 련 가
209
합창
에 - 야 - - - - 상 사 - - - 뒤 히 야
215
p
합창
여 봐 농 부 야 - - 말 들 어 -- 보 아 라


219
합창
p
- 어 화 농 부 야 말 들 어 - - 라
p
p
남 여 solo (unison)
223
S.
f
남 - 훈 - 전 달 - 밝 은 - - 데 순 임 - - - - 금 - 의 -
합창
mf
남 - 훈 전 달 밝 은 데
mf
f
229
S.
놀 음 이 요 - - 학 창 의 푸 른 솔 은 - 산 신 님 의 - - 놀 음 이 요 -
합창
놀 음 이 요 학 창 의 푸 른 솔 은 산 신 님 의 놀 음 이 요
mf


235
S.
오뉴월이당 -- 도 하면 - 우리농부 - 시절이로다- 패랭이 꼭지 에
합창
하면 우리농부 시절이 다 패랭이꼭지에
p
241
S.
계 화 를 - 꽂 고 - - 서 장 화 - 춤 - - 으 로 만 더 부 렁 - 거 리 세
합창
all unison
247
f
합창
에 야 하! 에 헤 야 - 아 - 루 -
f


251
합창
상 사 아 - - 뒤 히 야
자진농부가(중중모리) ♩. = 72
all unison
255
f
합창
에 헤 에 헤 어 루 상 - 사 뒤 히 요
f
남 여 solo
259
mf
합창
아 나 농 부 말 들 어 아 나 농 부 야 말 들 어 서 마 지 기
mf
264
합창
논 뼘 이 - - 가 반 - 달 만 - 큼 남 았 네 제 - 가 무 슨 반 - - 달 이 냐


all unison
269
합창
초 - 생 - 달이 반 - 달이로다 에 헤 에 헤 - 여 루 -
여성 남성 solo
273
합창
상 - 사 뒤 히 야 어 화 농 부 들 말 듣 소
277
합창
합창
아 나 농 부 들 말 들 어 충 청 - - 도 충 북 성 은
solo
solo


281
여성합창
합창
주 - 지가 지가 열렸 고 강 남 대 밤 - 대 추 는
f
285
solo
all unison
합창
아 그 대다 그대 열 렸 구 나 에 헤 에 헤 - 여 루 -
f
f
289
Piu mosso ♩. = 108
여성합창
합창
상 - 사 뒤 히 야 우 리 남 원 이 사 판 이 다
pp
pp


293
합창
어 찌 하 여 - 사 판 인 고
f
우 리 골 원 님 은 놈 판 이 요 각 청 좌 수 는
fz
fz fz
fz fz
298
합창
p
육 방 관 속 이 먹 을 판 났 으 니 우 리 백 성 들 이
p
비 판 이 요
fz fz
fp
302
합창
ff
죽 을 판 이 로 다 어 - - 어 - 여 루 상 사
ff
ff


Molto vivace ♩. = 126
306
합창
뒤 히 요 났 다 네 났 다 - 네 전 라 어 사 가
p
p
났 다 네 났 다 네
p
310
합창
났 다 네 어 사 성 씨 는 이 씨 라 더 라 에 - 헤
ff
ff
ff
314
합창
에 헤 여 루 상 - 사 뒤 히 야 - - -
fz fz


Andante
319
방자
참 알 겠 구 나 인 심 이 이 러 하
p
p
323
4
방자
니 어 떤 놈 은 팔 자 - 좋 아 서 일 대 영 화
328
방자
부 귀 - 하 고 이 놈 팔 자 기 박 - 하 여 서 이 다 지 도
333
Allegro
방자
곤 궁 - 한 고
우 리 아 가 씨 춘 향 열 녀
3
3


336
방자
불 쌍 하 고 도 불 쌍 하 다 서 울 가 옵 신 도 령 님 은 소 식 도 절 하 였 고
339
방자
이 일 을 어 쩌 면 좋 으 랴 아
342
방자
신 관 사 또 저 도 적 놈 은 춘 향 아 가 씨 죽 이 려 네
345
방자
하 늘 님 이 여 비 나 이 다 우 리 춘 향 열 녀 를 제 발 좀 구 원 해 주 소


348
도령
예 야 예 야
방자
서
352
방자
여 보 새 빨 간 젊 은 놈 이 늙 은 총 각 보 고 서 이 애 야
p
355
도령
누 구 는 알 아 서 무 엇 하
방자
애 야 당 신 은 대 관 절 누 구 요?
358
도령
나 어 데 로 가 는 가
방자
별 사 람 다 보 겠 네 님 이 야 어 데 가 - 든 지


361
방자
한 양 구 관댁 편 지가 지고 가 오 어쩔 테 요
f
364
도령
그 편 지 좀 보 여 다 오
방자
앗 따 별 꼴 다 보
*)
367
도령
귀 중 편 지
방자
겠 네 남 의 귀 중 편 지 를 어 찌 보 자 하 오
371
도령
이 애 야 만 약 그 편 지 사 연 에 너 를 죽 이


374
도령
라 고 했 으 면
어 쩌 겠 니
이 리 내 라 내
377
도령
좀 보 아 줄 께
mf
380
f
f
384
방자
3
3
허! 별 사 람 다 보 겠 네
388
방자
야 남 의 편 지 보 고 운 다
fz
fz


392
p
396
방자
아이 고 이 게 도 령 님 이 아 니 세 요
fp
399
방자
이 게 웬 일 이 세 요 벼 슬 도 못 하 시 고 그 지 꼴 이 왠 일 이 요
p
403
도령
그 래 춘 향 이 는 어 찌 되 었 나
(일어서며)
방자
도 령 님
p
406
방자
가 신 뒤 로 수 절 하 면 서 도 령 님 오 시 기 를 고 대 하 다


409
방자
가 포 악 한 변 사 또 거 절 했 다 고 내 일 날 은
412
도령
이 놈!
방자
내 다 놓 고 죽 인 다 오
415
Tempo I
도령
당 장 어 사 출 두 를 할 까
방자
도 령 님 이 암 행 어 사 란 말
ff ff
418
도령
아 니 야 그 리 나 되 었 으 면 말 이
방자
씀 이오
fp


421
도령
다
방자
왜 이러시오 소인한테까지 속일것이야
p
425
도령 어패를 꺼내 보인다
방자
무엇있어요
428
430
방자
3
아! 그러면 정말 어사


432
도령
야!
방자
좋 다 좋 다 좋 다 좋 다 정 말 좋 다
434
도령
이 놈 아 누 설 하 겠 다
3
방자
아 니 요
436
438


440
도령
3
야! 이 거 운 봉 영 감 께 갖 다 주 고 남 원
442
도령
으 로 오 라
445
도령
며 칠 고 생 할 께 다
449

제4막
2장
옥중 (獄中)




22
춘향
아 이 상
28
춘향
해 라 내 꿈 이 여 무 심 한 님 은
33
춘향
야 속 하 여 라 떠 나 가 신 후 소 식 없 고 나 홀 로 옥 중
37
춘향
생 활 을 하 니 가 엾 은 나 의 마 지 막 신 세 여


cad.
41
춘향
아
[41]
춘향
[41]
춘향
Allegro brillante
한 번 떠 나 가 신 후
mf
44
춘향
소 식 돈 절 하 옵 고
이 런 고 생
47
춘향
저 런 고 생
큰 칼 쓰 고
옥 중 에 서


50
춘향
길 고 짧 은 날 과 달 을 님 그 리 며 살 았 다 꿈
54
춘향
같 - - - 은 그 일 - - - - 사
p
60
춘향
실 - - - 로 변 하 - - - 면
65
춘향
그 오 - - - 직 기 - - - 별 - - - 가


70
춘향
신 - - - 이 - - - 여 이 - - - 소 - - - 원
74
춘향
이 - - - 룰 - - - 줄 믿 - - - 나 - - - 이 - 다
80
춘향
행 - - - 복 - - - 하 여 라 철 석 같 - 은 - 나 의
87
춘향
절 - 개 - 나 - 홀 - 로 - 찬 - 양 - 하 노 라 - - - - - - -


93
춘향
97
춘향
101
춘향
내 일 죽 을
fz
fz
106
춘향
찌 나 기 쁨 속 에 죽 고 낙 원 에 서 만 나


113
춘향
그 리 운 - 님 - 나 - 의 - 사 - 랑 - 이 - 여 -
118
춘향
불 러 보 며 안 기 리 라 불 러 보 며 안 기 리 라
124
춘향
안 - - - 기 - - - 리 - - - 라 - - - 나 - - - 의 - - - 사
129
춘향
(옥사장 눈뜨기 시작)
(총총 쓰러진다)
Moderato
랑
f


134
옥졸
춘 향 이 가 가 엽 소 물 이 나 마 시 오
p
140
춘향
고 맙 소
월매
왜 이 렇 게
도령
춘 향 춘 향
f
146
월매
떠 드 는 고 그 지 꼴 을 하 고
150
춘향
어 머 니 요
월매
아 가 아 가


154
춘향
아이 고 어 머 니
네 뉘 요?
월매
서 울 서 방 님 오 셨 다
158
월매
서 울 떠 나 간 네 서 방 인 지 묵 단 인 지 왔 다
pp
161
춘향
어 머 니 왜 말 씀 을 그 렇 게 하 시 오
월매
아이 고
p
fp
164
월매
벼 슬 하 나 못 하 고 그 지 되 어 왔 구 나 우 리 팔 자 더 욱 기 박 하 구


168
mf
Poco più mosso
춘향
(운다)
잘 되 어 도 내 사 랑 못 되 어 도 내 낭 군
월매
나
도령
내 사 랑 춘
p
ff
172
춘향
서 방 님
도령
향 춘 향 나 의 사 랑
175
178
춘향
2
그 리 워 그 리 워


184
춘향
사 랑 그 리 워 해 지 고 밤 되 면 별 을 헤 면 서 돌 아 올 이 날 을
192
춘향
기 다 렸 나 니
꿈 같 은 님 만 나 마 음 - 설 레 요
도령
천 리 길 이
199
도령
멀 다 하 였 소 물 건 너 고 산 넘 고 한 양 인 데 그 리 운 님 보 러
207
도령
내 왔 느 니 라 이 마 음 그 대 로 왔 나 이 다


213
춘향
사 랑 사 랑 우 리 사 랑 잘 되 어 도 우 리 사
도령
사 랑 사 랑 우 리 사 랑 잘 되 어 도 우 리 사
220
춘향
랑 못 되 어 도 우 리 사 랑 봄 이 되 어
도령
랑 못 되 어 도 우 리 사 랑 봄 이 되 어
227
춘향
꽃 이 - 피 고 서 밤 이 되 어 서 달 뜨 면 님 을 그 려 보
도령
꽃 이 - 피 고 서 밤 이 되 어 서 달 뜨 면 님 을 그 려 보


235
춘향
나 니 위 대 하 다 우 리 사 랑 산 과 같 을 까
도령
나 니 위 대 하 다 우 리 사 랑 산 과 같 을 까
243
To Coda
춘향
바 다 같 을 까 - 사 랑 사 랑 우 리 사 랑
도령
바 다 같 을 까 - 사 랑 사 랑 우 리 사 랑
249
춘향
서 방 님 내 일 은 내 가 죽 는 날 이 요 시 체 나 찾 아 묻 어
mf


256
춘향
주 어머니 오늘밤이라도 새옷드리고
261
춘향
진지대접잘하시오
도령
하 - 늘이무너져도 솟아날구멍이 있다
267
도령
D.S.
오 부디 경솔한 마음은 먹지마오
Coda
272
mp
춘향
사랑사랑우리사랑 우리사
도령
사랑사랑우리사랑 우리사
p



4막 끝

제5막

사또 생일잔치




1
사또
참 기 쁘 오
군수
사 또 수 복 을 빕 시 다
일동 합창
합창
네
mf
ff
mf
30
사또
맘 대 로 자 시 고 맘 대 로 드 시 오 내 게 는 부 족 이 없 지 않 소
34
(웃음)
사또
허…
(웃음)
합창
허…
오 늘 기 쁜 날
f


38
합창
꽃 향 기 가_ 득_차 오_ 월_달- 화 창 하 다 오 늘 이 요 이 날 은 사 또 님
42
사또
운 봉 이 영 감 이 왜 안 올 까
합창
생 - 신 - 이 - 요
p
45
합창
글 씨 말 이 요 좋 구 나 좋 구 나 정 말 좋 구 나
mf


48
사또
늦 으셨 소
이방
운 봉영 감 오 시 오
합창
야!
f
ff
fz
fz
51
운봉
미 안 합 니 다
합창
좋 구 나 좋 구 나 정 - 좋 - 구 - 나 신 관 사 또
mf


54
사또
아 기 쁘다 자 드 시오
합창
생 - 일 - 잔 치 날 인 읍 수 령 명 - 명 - 창
57
사또
운 봉 늦 게 온 벌 로
합창
구 - 름 같 이 도 모 여 든 다 좋 구 나 좋 다 좋 구 나 좋 다
61
사또
석 잔 을 드 오 하 하 하 하 하
합창
이 한 날 기 쁘 게 놀 아 보 세
f


65
사또
아 좋 구나 좋 구나 좋 다 오
합창
좋 다
69
사또
월_ 이라 좋 을시 고 꽃 향 기 는 가득히찼 구
합창
좋을 시 고
*)
74
사또
나 얼 씨 구 절 씨 구 참 좋 - 구
합창
가 득 히 찼 구 나 얼 - 씨 구 나


78
사또
나 이 것 은 내 천 하 여 러 분 술 마 시
합창
참 좋 구 나 얼 싸 좋 다
82
사또
오 좋 다 좋 다 좋 - 다 술 과 미
합창
부 어 라 마 시 라 좋 구 나 좋 구 나 부 어 라
87
사또
인 이 정 말 좋 구 나 부 어 라 마 셔
합창
마 셔 라 정 말 좋 구 나 좋 다


91
사또
라
참 - - 좋 구 나
참 - - 좋 구 나
자
합창
먹 고 놀 고 뛰 고 놀 고 좋 다
좋 다
자!
96
f
fz
100
사또
f
악 독 한 년!
독 사 보 다 더 한 년
운봉
무 엇 을 그 러 시 요
mf
f
fz
mf
fz
105
사또
f
이 년 을 오 늘
죽 인 다
rit.
랑청
암
fz
fp
fz


109
랑청
그 렇 지 그 렇 지
호 랑 이 는
산 중 왕 인 데
fp p fz fp fz f p mf
112
랑청
독 사 쯤 이 야
춘 향 이 가
오 늘 이 야
p
115
랑청
사 또 말 씀 을 듣 겠 지
그 러 나 봐 야 지
합창
그 렇 고 말 고
p
118
f
사또
뭐 야 어 쩌 고 어 째
참 괴 이 하 군
운봉
아 따 사 또 님 참 으 시 요
fz p fz fz fz


121
Allegro
운봉
요 사 이
랑청
잘 못 됐 소
mf
p
125
사또
헤! 별 소 리
운봉
호 남 지 방 에 암 행 어 사 가 왔 단 말 이 있 소
Andante
fz
129
사또
그 까 짓 암 행 어 사 가 다 무 어 요
앗 다 술 이 나
fz
p
133
사또
자 시 요 야! 얘 들 아 술 이 랑 안 주 랑


2
136
도령
동 편 하 늘 밝 아 온 다 모 든 희 망 가 져
사또
자 꾸 드 려 라
f
p
140
도령
오 매 만 날 님 을 그 리 면 서
사또
앗 따 무 슨 소 리 는
운봉
저 거! 무 슨 소 리 요
143
도령
여 기 왔 구 나 새 로 워 라 옛 날
운봉
아 니 오
mf


146
도령
일 이 꿈 결 같 이 지 났 건 만
사또
아 겁 쟁 이
운봉
암 행 어 사 소 리
149
도령
다 가 오 는 기 쁜 마 음
사또
앉 소 하. . . . 거 지
152
Più mosso
도령
야 아 뢰 어 라
사또
거 지 치 고 는 건 방 진 놈


154
도령
사 령 아 동 인 아 역 졸 아 군 노 야 지 나 는 거 지 가 술 잔 이 나 얻 어 먹 고
157
도령
가 련 다
사또
저 놈! 썩 내 쫓 아 라!
졸개
네
fz
fz
160
f
f
163
사또
f
아 이 놈 을 썩 못 끌 어 내 느 냐!
ff
fz


167
사또
그 누구없나 주릴할 놈!
fz
171
사또
뭐 요
운봉
아니 그럴것이 아니요
174
운봉
내게 좋은생각있소 저 놈 보아하니
177
운봉
양반자식이 분-명-하긴한-데


180
운봉
난 봉 나 서 글 공 부 는 못 하 였 을 것 이 라
183
사또
그 좋 소
운봉
글 이 나 지 으 래 서 못 지 면 쫓 기 로 합 시 다
186
사또
야 이 놈 아 그 렇 게 해 보 라
mf
189
f


192
도령
옛 다 받 아 라
195
도령
할 일 이 바 빠 내 가 간 다
랑청
거 지 쫓 는 데 는
198
사또
아 이 놈 봐 라
랑청
글 이 제 일 이 야
그 래 도 글 을 지었 는 데
201
사또
죽 일 놈
운봉
읽 어 보 시 오 무 슨
fz
fz
fp

Lento 시조풍으로 *)

204

사또

운봉

금 준 - 미 주 ___ 는 _

글 인 데 그 렇 게 화 를 내 시 오

fp

pp

207

사또

천 인 ___ 혈 이 요 _

옥 만 ___ 가 효 는 _

만 성 고 라 _

촉 루 낙 시

p

p

211

사또

민 루 낙 ___ 이 요 ___

가 성 ___ 고 처 ___

원 성 고 라 ___

p

f

214

Allegro

사또

애 들 아

랑청

아! 문 장 이 로 고

p

fz

fz

f

*) 편곡자 김희조 작곡의 시조창 (206~213 마디)


217
사또
금 방 여 기 서 나 간 거 지 놈 을 곧 잡 아 대 령 하 라
220
운봉
나 는 바 쁜 일 이 있 어
합창
네
p
223
사또
그 것 무 슨 소 리 요 이 제 춘 향 이 를
운봉
가 겠 소


226
사또
죽 일 텐 데
구 경 하 고 가 시 오
랑청
헴!
나 도 가 겠
229
랑청
소
그 거 지 가
심 상 찮 은
사 람 이 야
231
랑청
일 찍 빼
자
춘 향 이 나


233
사또
랑청
앉 소 못 가
많 이 죽 이 오 헤 - - -
p
f
236
사또
이 봐 라 춘 향 이 죽 일 준 비 가 다 되 었 나 어 서 꺼 내 와
합창
남성합창 Tenor
남성합창 Tenor
네!
네!
fz
fp
ossia
준 비 했 느 냐
240
사또
형 리 비 수 를 준 비 했 느 냐
합창
남성합창 Basso
남성합창 Basso
네!
네!
네!
f
p
fz
p
f


244
사또
자 술 들 어 자 시 오 풍 악 을 울 려 라
p
f
247
♩. = c. 48
이방
춘 향 나 옵 니 다
남성합창 Basso
합창
네
mf
251
사또
문 단 속 잘 하 고
합창
네
256


261
사또
흥 과 연 미 인 이 라
f
266
사또
야 춘 향 아
랑청
사 또 께 서 홀 딱 반 했 당 게
accel.
Moderato
270
춘향
어 서 죽 여 요
사또
마 음 을 슬 쩍 돌 려 봐 라
fp
fp
274
춘향
3
3
백 번 죽 어 도 마 음 은 하 나 요
fz
fz


Allegro
276
사또
저 년 을 죽 여 라
합창
네
f
ff
278
280
사또
북 소 리 울 리 고 칼 로 목 을 댕 강 베 라
283
사또
쳐 라!
합창
네


287
f
Allegro molto
도령
나 는 암 행 어 사 다
ff
ff
290
fz
293
f
296
299
Allegro grandioso
f


3
합창
우 리 의 암 행 어 사 여 그 기 세 위 대 하 도
ff
f
306
합창
다 불 의 한 것 모 두 물 리 쳐 서
309
합창
이 겼 네 위 대 한 암 행 어 사
f


312
합창
여 불 의 한 것 을 이 기 고 정 의 의
315
도령
이 자 를 결 박 하
합창
깃 발 은 펄 펄 펄 펄 날 린
318
도령
여 하 옥 하 라
합창
다 악 독 한 자 를 물 리
악 독 한 자 를 물 리 쳐 승 리 의


321
옥 에 있 는
애 매 한 사 람 들 다 놓 아 주 라
개 선 가 를
도령
합창
처 이 긴 후 개 선 가 불 러 보 자 높 - 이 - 부 - 르
개 선 가 불 러 승 리 의 개 선 가 불
325
암 행 어 사 어
자 개선가를부르자 암행어사 암행어사 위대한
러
329
사
암 행 어 사 암 행 어 사 여


Andante
332
도령
이 여 인 을 풀 어 주 고 약 을 먹 여 소 생 케 하
fp
336
도령
라
이 여 인 은
합창
가 엾 은 여 자 살 펴 주 소 서
340
도령
무 슨 죄 요
그 러 면
합창
한 남 편 섬 긴 그 뿐 이 외 다

Allegro

344

춘향

아!

도령

이 사 람 을 알 까

(수근수근)

합창

f

348

춘향

서 방 님!

도령

춘 향 아!

합창

서 울 가 신 도 령 님 이

351

f

합창

암 행 어 사 되 어 왔 다 우 리 의 암 행 어 사


354
합창
여 그 기 세 위 대 하 도 다 불 의 한
357
춘향
이 것 이 꿈 이 요 꿈 이 라 면
합창
것 모 두 물 리 치 고 이 겼
360
춘향
깨 진 말 고 나 의 사 랑 서 방 님
도령
참 이 다
합창
네 위 대 한 암 행 어 사 여 불 의 한


363
춘향
내 사 랑 영 원
도령
내 사 랑 영 원
합창
것 을 이 기 고 정 의 의 깃 발 을
366
Allegretto
춘향
하 여 라
도령
하 여 라
합창
펄 펄 펄 펄 날 린 다
mf


369
월매
아이고 이게웬일야 좋다 좋구나 좋다
합창
어 사사위요 어 사사위요
372
월매
그러면그렇지 내사위가그렇지 어사사 위 좋구나
도령
거지라고구박하더
합창
형 님 경 사 가 났 어요
375
월매
정 말좋구나 좋다 좋 구나 좋다
도령
니
합창
어 사사위요 어 사사위요


378
도령
장 모 내 가 가 져 온 내 아 내 예 복 을 입 혀 주 오 천 리 길 을
382
도령
내 왔 노 라 님 을 보 려 내 왔 노 라 잘 되 어 도
386
도령
내 사 랑 못 되 어 도 내 사 랑 우 리 사 랑
390
도령
영 원 하 여 라 님 을 향 한 이 마 음 은 죽 음 이 라 도


394
도령
무 섭잖 소 무 섭 잖 소
397
춘향
사 랑 사 랑 내 사 랑 참 사 랑
도령
사 랑 사 랑 내 사 랑 참 사 랑
401
춘향
영 원 한 이 사 랑 참 된 사 랑 잘 되 어 도
도령
영 원 한 이 사 랑 참 된 사 랑 잘 되 어 도


406
춘향
내 사랑 못 되어 도 사 랑 영 원 한
도령
내 사랑 못 되어 도 사 랑 영 원 한
410
rit. Allegro con brio
춘향
우 리 의 사 랑 이 라 영 원 하 다 내 사 랑
도령
우 리 의 사 랑 이 라 영 원 하 다 내 사 랑
f
414
합창
장 하 도 다 장 하 도 다 우 리 암 행 어 사


418
합창
장 하 도 다 장 하 도 다 우 리 암 행 어 사 여
423
합창
장 하 도 다 장 하 도 다 우 리 암 행 어 사
427
합창
장 하 도 다 장 하 도 다 우 리 암 행 어 사


431
방자
아 이 고 이 것 이 웬 일 이 요
합창
여 우 리 의 암 행 어 사 여 그 기 세
f
434
도령
입 싼 죄 다
방자
어 사 님 도 나 를 그 레 가 두 어 놔 요
합창
위 대 하 도 다 불 의 한 것 모 두


437
합창
물 리 쳐 서 이 겼 네 위 대 한
440
합창
암 행 어 사 여 불 의 한 것 을 이 기 고 정 의 의
444
합창
깃 발 을 펄 펄 펄 펄 날 린


447
춘향
암 행 어 사 행 복 하 여
월매
암 행 어 사 행 복 하 여
도령
암 행 어 사 행 복 하 여
합창
다 악 독 한 자 를 물 리 쳐 이 긴 후
악 독 한 자 를 물 리 쳐 승 리 의 개 선 가 불
451
춘향
라 암 행 어 사 여
월매
라 암 행 어 사 여
도령
라 암 행 어 사 여
개 선 가 를
합창
개 선 가 불 러 보 자 높 - 이 - 부 - 르 자 개 선 가 를 부 르
러 승 리 의 개 선 가 불 러


455
합창
우 리 의 암 행 어 사 여 그 기 세 위 대 하 도
자
f
459
합창
다 불 의 한 것 모 두 물 리 쳐 서 이 기 었
463
합창
네 이 기 었 네 행 복 한 사 랑 이 여 사 랑 이 여


466
춘향
사 랑 사 랑 사 랑 사 랑
월매
암 행 어 사 암 행 어 사
도령
사 랑 사 랑 사 랑 사 랑
합창
사 랑 이 여 사 랑 이 여 암 - - 행 - - 어 - - 사 - - 암 - - 행 - - 어 - - 사 - -
469
춘향
암 행 어 사 사 랑 아!
월매
암 행 어 사 이 도 령!
도령
암 행 어 사 춘 향 아!
합창
암 행 어 사 암 행 어 사 이 도 령!
끝

김희조 (1920~2001)

판소리와 한국 민요, 산조 등 국악곡을 채보하여
('경복궁 타령', '신고산 타령', '춘향가', '심청가' 등)
서양식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위하여 최초로 작품화한 작곡가
'한국 민요 합창곡집 24곡' 출판 (1980)
'국악 합주곡 11곡 전집' 출판 (1999)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한국 초연 지휘 (1960)
오페라 '마르타' 한국 초연 지휘 (1961)
'예그린 악단' 작곡·지휘자 (1962)
신흥대학교(경희대학교 전신) 음악과 교수
서울예술대학 국악과 교수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옥관문화훈장 (1998)
은관문화훈장 (2005)
충무무공훈장 (2013)
'남에는 김희조 북에는 김순남' 전기 출판 (2002)

김덕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지휘과 교수 (1995~2018)
서울예술고등학교, 단국대학교, 밀라노 베르디 음악원 수학
오페라 상설무대 제작 및 지휘
오페라신문 편집위원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국립발레단, 유니버설오페라단,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 프라임필하모닉, 코리아쿱, 도쿄 필하모닉, 도쿄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그리스 테살로니키 심포니 등 지휘
30여 장의 음반 편곡·지휘
50여 편의 오페라 지휘 및 제작
대한민국 오페라상 (2009)
교육부 장관 표창 (2013)
대한민국 오페라 어워즈 금상 (2023)

조상욱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휘과정 수료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석사
보스턴대학교 (Boston University) 박사과정 수료
동아음악콩쿠르 작곡 부문 입상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제주교향악단, 원주시립교향악단, 춘천시립교향악단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등 객원 지휘
'유쾌한 클래식' 시리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지휘
광주시립오페라단 오페라 '망부운' 복원 및 편곡
코리아쿱오케스트라 창작 프로젝트 칸타타 'Lux Venit' 작곡
영남대학교, 강원대학교, 남서울대학교 강사 역임
경기광주꿈의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단국대학교 출강

부록

본 부록에 수록된 「춘향전」 관련 자료는 손수연, 한국오페라역사박물관,
『한국 오페라 첫 15년의 궤적 1948-1962』 (에디트마이데이, 2025) 중 해당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이오테크닉스' 성규동 회장의 제공으로 수록되었다.

1장

1950

<춘향전>
한국의 첫 창작 오페라

한국에서 오페라가 공연된 것은 해방 후이지만, 일찍이 19세기 후반 서양음악이 도입된 이래로 오페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호기심은 상당하던 것 같다. 정통 오페라로 보기는 어렵지만 1940년대 작곡가 안기영이 주도한 향토가극 운동이라든가, 해방 전 작곡가 한형석이 중국에서 작곡해 공연한 항일 가극 <아리랑>이 그 방증이다. 무엇보다 한국 창작 오페라에 대한 관심을 엿보게 한다.

1950년 5월, 드디어 한국인이, 한국 전통 소재로 창작한 오페라가 서울에서 초연되었다. 현제명 작곡의 오페라 <춘향전>이다. 이 작품이 공연되기 전인 1950년 3월 21일 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春香傳 오페라化 玄濟明씨 努力으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解放 後 各界各層에서 大望中이던 春香傳의 오페라화가 완성되었다. (중략) 요즈음 완성은 보아 五月上旬頃에는 國內에서 먼저 上演하리라 한다." 기사에 나온 '해방 후 각계각층에서 대망 중…'이란 표현처럼 당시 우리나라 예술계에서는 창작 오페라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었다. <춘향전>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아는 러브 스토리이자 전형적 권선징악형 민담을 바탕으로, 당시 인기 극작가 이서구(1899~1981)[1]가 대본을 쓰고 유치진이 연출해 첫 공연을 올렸다.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문화 엘리트들이 참여한 결과물이었다. 초연 당시 불안정하고 미흡한 관현악법과 복잡한 극

1 이서구는 서울 출생으로 교동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제일고등보통학교와 사립 오성학교를 중퇴했다. 1920년 『매일신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에서 '고독에 우는 모녀'로 2등에 당선되었고, 그해 창간한 『동아일보』의 사회부 기자로 입사했다. 1921년 『조선일보』의 도쿄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일본 니혼대학 예술과에서 수학하기도 했다. 1922년 귀국해 도쿄 유학생 중심으로 구성한 신극 연구단체 '토월회'를 함께 창립하는 한편, 『매일신보』 사회부장으로 일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활동도 이어갔다. 1930년대 중반부터 극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해 연극이나 대중적 신파극, 라디오 방송극의 대본을 창작했다. 1940년대부터는 일본 총독부가 주도하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대의 연극 조직 '조선연극협회'의 회장을 역임하는 등 친일 행적을 보이기도 했다. 이서구는 전문 오페라 극작가는 아니지만 다양한 극본을 창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판소리를 오페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의 전개로 지적을 받았으나, 익숙한 소재와 친근한 멜로디로 점차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공연한 창작 오페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이후 탄생한 수많은 한국 창작 오페라의 전형으로, '서양 예술 형식의 한국적 완성'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춘향전>이야말로 우리나라 오페라 역사에서 기념비적 작품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부민관(당시 국립극장) 무대에서 초연한 <춘향전>은 각계각층에서 고대한 만큼 좋은 성과를 남겼다. 10일 동안 관객 5만여 명이 관람했다고 하는데, 당시 서울 인구가 1백69만 명 정도이던 것을 생각하면 기록적인 흥행이었다.

오페라 <춘향전>은 판소리 다섯 마당의 <춘향전>과 마찬가지로 5막 6장으로 구성했다. 판소리 <춘향전>에 익숙한 관객들은 서양 음악 형식으로 작곡한 오페라의 리듬과 선율을 낯설어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장르에 대한 호기심과 아리아의 쉬운 멜로디 덕에 점차 인기를 얻게 됐다. 쉽고 친근한 선율은 오페라 <춘향전>의 큰 약점이자 강점이었다. 평면적이고 직설적인 노랫말에 붙은 단순한 화성의 악곡은 오페라를 위한 악보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오페라 공연을 위해서는 반주부에서 여러 악기의 활용과 조화가 명시되고 풍성한 화성이 동반된 관현악법에 따른 오케스트라 악보가 따로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아노로만 되어 있는 <춘향전>의 원작 악보는 관현악 부분이 너무 불확실하고 소규모로 편성되어 보강이 필요했다. 또한 연극 대본을 오페라 대본으로 옮기다 보니 발성을 위한 가사 처리가 잘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성악가들의 노래가 또렷이 전달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러나 오페라가 생소한 당시 관객들에게는 간결하고 복잡하



1950년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부민관에서 공연한 <춘향전> 포스터. 한국인이, 한국 전통 소재로 창작한 최초의 오페라로, 이서구가 대본을 쓰고 현제명이 작곡했다. 10일 동안 관객 5만여 명이 관람할 정도로 대흥행을 기록했다. 출처 『오페라』 창간호.



1950년 5월 공연한 <춘향전>의 세 주역. 왼쪽부터 춘향 역의 소프라노 이관옥, 월매 역의 알토 김혜란, 도령 역의 테너 이상춘. 사진은 김혜란의 자제인 지휘자 김봉 기증.

지 않은 점이 오히려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오페라에서 이몽룡과 춘향이 사랑을 주고받는 대목에 등장한 이중창 '사랑가'는 장안의 유행가가 됐다. '한 번을 보아도 내 사랑, 열 번을 보아도 내 사랑'으로 시작하는 사랑의 이중창은 우리 민족이라면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본 중독성 있는 멜로디였고, 입에 딱 붙는 가사였다. 이 노래는 요즘에도 널리 연주되는 곡으로 남았다. 음악인 신갑순은 <춘향전>의 초연을 관람한 중학교 시절을 회고하며 "공연을 본 다음 '사랑가'를 바로 따라 부르기도 했다. 테너의 아리아 '동편 하늘 밝아온다' 또한 무척 인상 깊었다."라고 증언한다. '동편 하늘 밝아온다' 역시 '사랑가'와 마찬가지로 민요조의 단순하고 반복되는 선율로 관객들의 귀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음악적 구성을 취한다.

1950년 <춘향전> 공연 이후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창작 오페라는 주로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소재를 다뤘다. 심각한 주제 의식을 담기보다는 친숙한 인물을 통해 서양음악이라는 이질적 요소를 융화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정서적 유대감을 찾게 하려 한 시도로 생각된다. 이 작품 이후에도 창작 오페라 역사에는 두 편의 또 다른 <춘향전>이 등장했다. 또한 <콩쥐팥쥐>,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심청전>, <원효대사> 등 우리에게 익숙한 전래 설화나 신화를 소재로 한 오페라가 꾸준히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떤 작품도 현제명의 <춘향전>과 같은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다.

훗날 오페라 <춘향전>의 연출을 맡기도 한 연극 연출가 이진순은 이 무렵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앞으로 오페라를 조직적으로 확장시켜 오페라 창작을 왕성히 하고 우리 오페라로 세계 무대로 나아가자."고 했다. 첫 번째 창작 오페라에서 이렇게 호기로운 주장이 나왔다는 것은 당대 예술인들이 오페라에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 하겠다.

안타깝게도 1950년 공연한 <춘향전>의 프로그램 북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 그뿐 아니라 한국전쟁의 여파로 1950년 <춘향전> 이후 오페라 공연은 중단되었다. 그러고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여름 피란지 대구와 부산에서 <춘향전>을 다시 공연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번 전시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1951년 7월 대구에서 공연한 <춘향전>의 프로그램 북을 입수했다. <춘향전>은 1951년 7월 3일부터 10일까지 대구 문화극장에서 다시 공연되며 인기를 끌었고, 대구에서 공연한 최초의 오페라로 인식된다. 당시 프로그램 북을 통해 공연 사실을 재확인하고, 피란지에서까지 공연한 이 오페라의 저력을 살펴볼 수 있다.

공연 장소인 대구 문화극장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서울의 국립극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한시적인 국립극장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 극장은 음악회장이 아닌 주로 연극을 위한 공연장으로 활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프로그램 북에 따르면 춘향 역에 소프라노 홍춘화·신선자, 도령 역에 테너 이상춘·사상필, 신관 사또 역에 바리톤 김학근, 월매 역에 알토 김혜란 등으로 1950년 5월 서울 초연 이후 1년 사이에 출연진이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월북하거나 납북된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 초연 때 출연한 성악가 중 춘향 역할의 소프라노 권원한, 향단 역할의 소프라노 정영자가 월북하고, 변사또 역할의 베이스 김형로가 납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연은 UN군의 후원으로 성사되었다. 제작진은 지휘 현제명, 연출 이진순, 합창 지휘 김성태, 안무 김선화, 의상 장치 김정환, 조명 최진 등으로 구성했다. 현제명 또한 '작곡자의 말'에서 "초연 때의 무대장치나 의상 등 각종 도구가 사라진 암담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좋은 출연진, 무대장치 등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951년 7월 3일부터 10일까지 대구 문화극장에서 공연한 <춘향전> 프로그램 북 표지. 1950년 서울 초연에 이어 전쟁 중 피란지에서 공연한 오페라여서 더 의미가 있다. <춘향전>은 이후 탄생한 수많은 한국 창작 오페라의 전형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기념비적 창작 오페라다. 성규동 기증.



1951년 7월 대구에서 공연한 <춘향전> 프로그램 북 내지에는 국문과 영문을 병기한 시놉시스 외에도 막과 장의 주요 장면을 그린 삽화가 실려 있다. 성규동 기증.

第五幕　東　軒　(卞使道生日)

登 場 人 物

卞使道, 獨峰驛卒, 鄭守令, 船頭, 通引, 若干,

月梅, 香丹, 房子, 其外는 三等 登場人物과 같음

生日잔치는 벌어졌다. 거지가 나타났다. 거지,처모는 이상한 거

동이다. 몽둥 걸어 걸식 온 듯하면 몰기도 하였다. 그러나 범

상치 안 한듯.

탐기로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기름진 술안주　　백성들의 기름
촛불 떨어지는　　백성들의 눈물
노래소리 높을　　백성들의 원망소리

聽官 같이 大驚난 卞使道 흥중 마시 검사를 즉일 停職시
다 지령다. 마지 나타나는 거지는 暗行御使이었다. 貪官 汚
吏는 下獄시키고 選令 御使와 暴露된故 마지 만나 一堂은 歡
喜하고 令閨스러운 場面이 벌어졌다.

—끝—

ACT FIVE

The next day is the birthday of the new magistrate. The disguised Do Ryung presents himself before the feasters at the reception hall of the Yamen. He is driven out of the place.

He leaves, to the surprise of all, a few lines of verses, which reads,

"The oil that enriches the food of the official is but the life blood of the down-trodden people, whose tears are of no more merit in the eyes of the oppressor than the drippins of a burning candle."

Reading these lines, the new magistrate, raged with fury, orders his attendants to invest the intruder.

The beggar is caught and brought into the yard where Choon Hyang is about to be executed, when sudden shouts and cries arise inside the Yamen; - "The Uhsa (The Government Inspector) is here! All be quiet, the Uhsa is coming!"

"Deep consternation settled over all;
Confusion reigned within the festal hall;
Dismounted soldiers pushed within the place
Where men for every exit madly raced."
The proud host of the feast seeks a place to hide his guilty head.
The Inspector, now in decent clothes, ascends the judgment seat and begins to examine things that need care and calls all the officials there before him.
As a result, the wicked magistrate is bound with chains and thrown into prison.
Choon Hyang raises her head and sees in wonderment her husband seated in the chair. Do Ryung takes his wife in his arms, and they are united forever,-in joy, peace, and comfort.
All the people, including her mother, and Hyang Dan, rejoice with Choon Hyang and the country rang with the praises of her virtue, thereafter.

오 페 라 를 들 으 시 는 이 에 게

—알 아 두 실　몇 가 지—

이런 말을 여기 늘어놓는 것은 크나 큰 失禮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직 오페라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듯하여 극히 상식적인 것이나마 두어 가지 들어볼까 한다.

(1) 外國人들이 오페라를 들으러 올 때 服裝을 보면 禮服이나 正裝을 한다. 脫帽는 勿論이고 가장 節度있기를 힘쓴다.

(2) 指揮者가 舞臺에 나타나면 勿論 拍手로 歡迎의 意를 表한다. 그다음 오페라가 進行中이라도 아리아나 重唱의 聯奏이 매우 좋다고 생각 될 때

는 亦是 拍手로 앙콜을 請한다. 그러면 그 아리아 或은 重唱을 다시 불러줄 수도 있다.

(3) 下幕이 되면 또 拍手로 歡迎를 表한다. 拍手가 繼續되면 出演者가 다시 나타나 答禮를 하기도 한다.　(拜生)

茶房
서울 나하나
大邱市倉村洞五四

茶房
常綠
大邱市 O.C.I 옆

茶房
무지개
大邱市中央派出所앞

茶房
白鳥
大邱市北旅路一街二一
李三根

프로그램 북 내용 중 눈에 띄는 한 가지는 '오페라를 들으시는 이에게'라는 제목으로 정리한 오페라 관람 예절. 처음 오페라를 접하는 관객을 배려한 '알아두실 몇 가지'를 원문 그대로 옮겨 적는다.

"이런 말을 여기 늘어놓는 것은 크나큰 실례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직 오페라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듯하여 극히 상식적인 것이나마 두어 가지 들어볼까 한다.

(1) 외국인들이 오페라를 들으러 올 때 복장을 보면 예복이나 정장을 한다. 탈모(모자 벗기)는 물론이고 가장 정숙하기를 힘쓴다.

(2) 지휘자가 무대에 나타나면 물론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다음 오페라가 진행 중이라도 아리아나 중창이 청중이 매우 좋다고 생각될 때는 역시 박수로 앙콜을 청한다. 그러면 아리아 혹은 중창을 다시 불러줄 수도 있다.

(3) 하막이 되면 또 박수로 사의를 표한다. 박수가 계속되면 출연자가 다시 나타나 답례를 하기도 한다."

이 오페라에는 한국예술원 음악부의 관현악반, 합창반과 한국발레단, 특별 후원으로 공군본부 군악대와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 등이 참여했다. 여기서 한국예술원은 특기할 만한 단체인데, 현재 남아 있는 특별한 정보는 없으나 현제명이 이후 부산 공연을 '한국예술원 창립 공연'으로 명명한 것을 보면 전쟁 중에 예술가들을 위해 발족한 조직으로 유추된다. 오페라 프로그램 북에 실린 한국예술원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김정열 공군총참모장이 명예 이사장, 현제명이 총재를 맡고, 연극부장 유치진, 미술부장 이상범, 음악부장 김성태 등이 참여했다. 총재 현제명은 프로그램 북에 실린 글에서 "이 예술원은 공군본부와 민간의 후원으로 창립되었으며, 교육기관도 아니고 협의 기관도 아니고, 이론이나 캐고 방관하는 유휴 예술가들의 조직이 아닌, 오직 실력 있는 실천 예술가들이 연구와 예술 활동을 병행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시하에 정신 무장 등으로 최대한 협조하는 후방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예술원 음악부는 젊은 음악인이 모인 해군정훈음악대와 함께 전시체제에서 정훈 활동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1951년 7월 대구에서 공연한 <춘향전>의 프로그램 북은 우리말과 영문을 병기했다. 매번 시대적 주류에 명확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현제명의 처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래에 <춘향전> 창작과 관련한 작곡자 현제명의 말을 옮겨 싣는다. 그는 우리의 고유한 배경을 지닌 오페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변변치 못한 작품을 여러 음악 동지들의 권으로 작년 봄 우리 수도 서울서 발표 공연을 갖었든 것이다. …… 오페라 춘향전을 다시 상연한다는 것은 인적, 물적 양면으로 불가능한 일을 시작하여 다소 불안감이 많었습니다만 의외에도 초연 시보다 더 좋은 의상 장비가 준

비된 것이라던가 더 좋은 성악가들을 갖이게 되여 기쁨을 금치 못하겠다. 특히 우리들을 위하여 멸공전에 가맹한 UN군들에게 우리의 문화 일편을 좀 더 잘 보여줌이 어느 의미로던지 좋은 일이라고 보아 이 공연을 많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춘향전은 연극으로 레뷰로 창극으로 등장된 것이나 순 오페라 형식으로 되여진 것은 이것이 처음인가 싶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갖인 음악으로서는 창극이 있으니 이는 재념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고유한 의상과 배경으로 세계 공통어인 음악으로 레지타티부와 아리아를 부르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최대 표현을 연구코저 한 것이다. …… 여기 사용된 한민요를 배경으로 한 춤과 레치타타터-부는 다각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나의 다른 원고에는 한민요를 전혀 인용치 않기로 하였으나 이번 이렇게 해온 것은 한민족의 풍취를 좀 더 발휘시켜 볼가 하는 시험이다.

- 1951년 대구에서 공연한 <춘향전> 프로그램 북의 '작곡자의 말'

이처럼 우리의 고유한 소재와 민요를 바탕으로 한 오페라를 만들어 세계와 소통하고자 한 시도는 전쟁 중에도 지속되었다.

<춘향전>을 남긴

작곡가 현제명

현제명(1902~1960)은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났다.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통해 서양음악을 접했다. 대구의 계성학교를 거쳐 1924년 평양 숭실학교 대학부(숭실대학)를 졸업했다. 특별활동을 통해 선교사들에게 성악과 피아노를 배우며 숭실대학 합창단에서 활동했다. 1925년 미국 시카고 무디성경학교(Moody Bible School)에 입학해 신학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 인디애나주 건음악학교(The Gunn school of Music)로 옮겨 음악 학사가 되었다.

귀국 후 1929년, 첫 독창회를 대구에서, 두 번째 독창회를 서울에서 열었고, 이때 유학 시절 작곡한 '고향 생각', '산들바람' 등을 불렀다. 그는 연희전문학교 음악 및 영어 전임강사로 부임해 음악 교육자, 성악가,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당시 조선의 서양음악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31년에는 조선음악가협회를 창설해 초대 이사장직을 맡았다. 1932년에는 『현제명 작곡집』 1집을, 이듬해에는 두 번째 작곡집을 발간해, '그 집 앞', '희망의 나라로' 등 대표 가곡 마흔두 곡을 수록했다. 1933년 현제명과 홍난파의 합동 작품 발표 음악회가 이화여자전문학교 강당에서 열렸고,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작곡 발표회로 기록되어 있다. 1936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시카고 음악연구원에서 「자연발성법의 원리와 그 결과」로 음악 박사 학위를 취득, 1937년 귀국했다.



창작 오페라 <춘향전>과 <왕자 호동>을 작곡한 현제명.

1937년 6월, 현제명은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당시 조선의 지식인 대부분과 함께 일제에 검거되었다. 사상 전향서를 쓰고 풀려난 이후 그는 창씨개명을 하고 일제의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을 지지하는 가요를 작곡하고 친일 단체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친일 행적을 드러냈다. '음악보국대연주회'에 출연한 수익금 전액을 일제의 침략 전쟁을 위한 국방 헌금에 헌납할 것을 결의하고 실천에 옮기기도 했다.

광복 이후 현제명은 한국민주당 발기인 겸 중앙위원회 문교부 위원에 선임되었으며, 고려교향악단을 조직해 1948년까지 운영했다. 1946년에는 경성음악학교 교장으로 취임했고, 경성음악학교가 서울대학교에 편입된 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초대 학장이 되었다. 1949년에 문교부 예술위원회 음악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한국음악가협회를 조직했다. 1954년에는 예술원 종신회원에 선임되었다.

현제명의 활동 중 가장 큰 업적은 1950년 오페라 <춘향전>을 작곡해 한국어 창작 오페라의 첫 장을 연 것이다. 1954년에는 <왕자 호동>도 작곡, 공연했다. 이처럼 현제명은 20세기 초·중반 한국의 서양음악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했고, 한국 가곡 및 오페라 창작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친일 행위로 『친일인명사전』에 오르는 등 음악계 안에서도 공과가 가장 뚜렷한 인물로 평가된다.

"변변치 못한 작품을 여러 음악 동지들의 권유로 작년 봄 우리 수도 서울서 발표 공연을 갖었든 것이다. ••••• 오페라 춘향전을 다시 상연한다는 것은 인적, 물적 양면으로 불가능한 일을 시작하여 다소 불안감이 많었습니다만 의외에도 초연시보다 더 좋은 의상 장비가 준비된 것이라던가 더 좋은 성악가들을 갖이게 되어 기쁨을 금치 못하겠다. 특히 우리들을 위하여 멸공전에 가맹한 UN군들에게 우리의 문화 일편을 좀 더 잘 보여줌이 어느 의미로던지 좋은 일이라고 보아 이 공연을 많이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춘향전은 연극으로 레뷰로 창극으로 등장된 것이나 순 오페라 형식으로 되여진 것은 이것이 처음인가 싶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갖인 음악으로서는 창극이 있으니 이는 재념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고유한 의상과 배경으로 세계 공통어인 음악으로 레지타티부와 아리아를 부르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최대 표현을 연구코저 한 것이다. ••••• 여기 사용된 한민요를 배경으로 한 춤과 레치타타터-부는 다각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나의 다른 원고에는 한민요를 전혀 인용치 않기로 하였으나 이번 이렇게 해온 것은 한민족의 풍취를 좀 더 발휘시켜 볼가 하는 시험이다."

— 1951년 대구에서 공연한 〈춘향전〉 프로그램 북 「작곡자의 말」